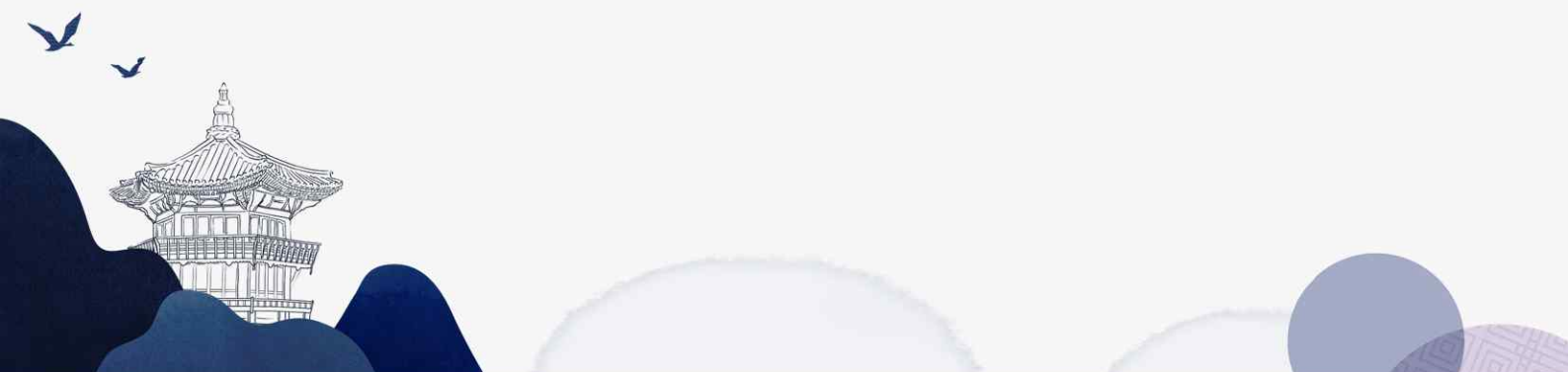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30
4	讲义	62
5	퀴즈	83
6	토론	87
7	자료	89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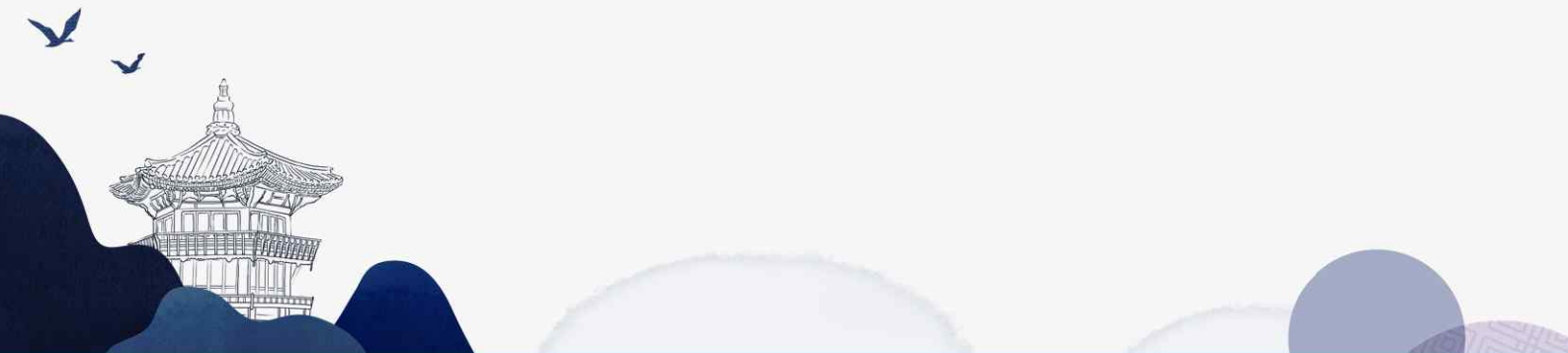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4

주차

《경민편》 읽기

4-1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내림은 '망민(罔民)'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경민편』의 강의를 맡은 정호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경민편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 강의 '경민편의 이해' 후속 편입니다.

편자인 김정국은 조선의 지방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경민편은 이후 여러 차례 증보되는 변화를 거치며 조선 말기까지 이용됩니다.

이 책은 여러 특성을 가집니다. 하나의 책이되 시기에 따라 형태와 구성, 내용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지방민들이 편하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점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구사하는 논리나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문으로 본문을 작성하되, 한글 번역문을 덧붙인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민편 읽기를 통하여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조선의 권력이 지방민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어떤 사상,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나아가 권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 문자가 어떠했는지도 보여줄 것입니다. 강의는 17세기 중엽에 나온 이후원 간본을 저본으로 하였습니다. 읽기 편하게 깔끔하게 인쇄된 목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국가든, 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왔습니다. 조선 또한 건국 후, 범죄·범죄자를 다루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경국대전,大明律 등의 법전은 조선이 정한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경민편은 백성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책입니다. 김정국은 조선의 범죄를 1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13개 장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장별로 하나의 범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김정국은 조선에서 통용하는 여러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법전 그대로 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김정국이 경민편을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경민편이 오랫동안 조선에서 활용되는 까닭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장의 제목에서 '망민'은 법의 그물을 쳐 놓고 백성들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하 강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민편의 13개 편 장에서 다루는 범죄, 그에 따른 처벌 방식은 모두 경국대전, 대명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민편의 13개 장의 성격, 배치 방식 등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3개 편 장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부모, 부처, 형제자매, 족친의 4항목의 가족 혈연관계의 범죄, 1항목의 노비, 인리 1항목의 향촌에서의 범죄, 도적, 투구, 범간, 살인의 4항목의 향촌 구성원 사이의 일반 범죄, 근업, 저적의 2항목의 농사 및 저축 관련 범죄, 사위 1항목의 관공서 혹은 공권 관련 범죄 등으로 나뉩니다.

이들 여섯 유형의 범죄는 다시 대명률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 항목, 곧 B로 표기한 항목들과 그렇지 않은 항목, 곧 A, C로 표기한 항목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구, 범간, 사위, 도적, 살인 등은 대명률에서 범죄의 주제로 설정해서 울문을 제시합니다. 경민편 역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대명률에 설정된 주제는 아닙니다. 대명률을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경민편의 항목명은 대명률에 실려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경민편의 주된 특성을 찾자면 대명률에 이름이 실려 있지 않은 항목 A, C를 주목해야 합니다. A로 표기한 항목의 범죄는 주체 곧 부모, 자식과 같은 행위 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인, 욕설, 구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항목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범죄는 항목 내에서 서술하고 있고, 그 처벌 규정은 모두 대명률을 따랐습니다.

C로 표기한 범죄는 범죄로 보기에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리의 경우에는 향촌 내 구성원들 사이에 신분 질서를 잘 지키고 돕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처벌 규정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조선에서 정해진 형률을 거론했습니다. 근업은 농사일을 부지런히 할 것, 저적은 추수 후 곡식을 낭비하지 말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처벌 규정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국이 단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대명률 규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범죄를 지방민들에게 알려 주고, 이를 피하도록 할 목적으로만 경민편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국은 부모에서 가문으로 이어지는 혈연의 존재를 중시하여 인륜에 맞추어 살기를 강조하는 한편, 향촌 내 신분 질서를 지키면서도 서로 도우면서 사는 생활, 농사일에 집중하고 낭비하지 않으면서 사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점은 김정국 개인의 이상이면서도 기묘사림들이 중시하여 정책으로 실현하려던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경민편은 특별한 의식과 목적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김정국이 경민편을 편찬하며 가졌던 생각은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김정국의 사유, 경민편의 개성이 잘 보입니다. 김정국은 이 글에서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백성들에게 범죄와 법의 의미를 알려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다스리면, 이것은 백성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벌과 법을 만든 것은 모두 옛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그들을 먼저 도덕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구금 여부를 논한다면,
이 어찌 백성에게 그물질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벌레처럼 어리석은 백성이 인륜이 중요한 줄 모르거니와, 어찌 법을 만든 깊은 속내를 알겠는가?
어리석어 병어리나 귀머거리와 같고, 미련하여 오직 옷과 밥에만 달려드는 백성이
스스로 법 규정을 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담당 관리가 이에 법을 살피 오랏줄로 묶기를,
그물을 풀어 참새를 잡고 기함(機檻-맹수 잡는 덫)을 설치하여 맹수를 잡는 것과 같이하니,
어떻게 백성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고 악을 멀리하게 할 수 있겠는가?”

김정국은 형벌과 법의 존재에 대해 긍정합니다. 이 시기 형벌은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고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김정국은 옛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형벌을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백성들을 먼저 도덕으로 인도하지 않고 형벌로만 다스리려 한다면 이는 '백성들을 그물질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이유를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고 처벌한다면, 이는 그물을 풀어 참새를 잡고, 덫을 설치하여 맹수를 잡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망민의 사유는 본시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죄를 짓는다고 가혹하게 처벌하면, 그것은 곧 그물을 쳐 두었다가 새를 잡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김정국은 이를 인용하여 백성들이 범죄의 문제를 잘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도록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지방민들이 경민편을 읽으면서 먼저 근본과 사리를 알고, 법의 처벌 규정을 알아 선을 가까이하고 악을 멀리하기를 강조했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반드시 근본을 미루어 이치(理致)를 거론한 것은 백성들이 마음으로 느껴 흥기하기를 바래서였고, 법(法)을 인용하여 참증(參証)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피할 줄 알기를 바래서였다. 말은 간단하게 문장은 범속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배우지 아니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법의 무서움을 알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범죄가 성립하고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근본 이유를 깨닫는 일이라는 것이 김정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정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내용을 쉽고 평범한 단어와 문장으로 작성, 지방민들이 어려운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목민관 곧 수령들은 이 책으로 백성들의 풍속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주인공이 다름 아닌 군현(郡縣)의 수령(守令)이니, 그들이 이 책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풍속을 변화시키는 방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편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우리 목민(牧民)하는 사람들은 또한 항상 엄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의 지방제도는 전국을 팔도(八道)로 나누고 각 도별로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을 두었습니다. 도를 관장하는 관료는 관찰사 또는 감사라고도 합니다. 그 아래 주·부·군·현의 책임자는 통상 수령이라고 불렸습니다. 관찰사는 수령을 관리 감독하는 존재였으며, 군현의 정치는 실제 수령이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은 목민관이라고도 했습니다.

항해도 감사였던 김정국이 경민편을 편찬, 간행하였지만, 이를 실제 항해도민들에게 보급하고 또 익히도록 하는 역할은 수령이 맡았습니다. 김정국이 목민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경민편은 목민관(牧民官) 곧 군현의 수령이 지방을 다스리면서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책이었습니다. 목민관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민편은 수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목민서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목민서는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군현을 다스리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해 두어, 목민관들이 지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했습니다.

15-16세기 조선의 지방관들이 참고한 목민서는 목민심감(牧民心鑑)이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명나라의 주봉길(朱逢吉)이란 관리가 편찬했었는데 조선에서는 태종대 들여와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간본입니다.

다음 강의는 『경민편』의 부모와 부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2 부모와 부부

지난 강의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내림은 ‘망민(罔民)’이다”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부모와 부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국은 경민편에서 부모, 부부, 형제자매, 친족의 혈연관계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교 전통에서 부모, 가족 등의 혈연은 늘 중시되었지만, 조선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는 16세기 초부터 특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뒷받침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나가려는 이 시기 사족들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소학, 정속언해, 주자가례 등의 문헌이 주목되고 널리 활용되는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민편에서 보이는 이런 특성도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장의 첫머리입니다. 구결을 붙여 원문과 번역을 읽어 보겠습니다.

부여천(父如天)하시고 모여지(母如地)라 구로생아(劬勞生我)하샤 신근유포(辛勤乳哺)하시며
간난양육(艱難養育)하시니 부모은덕(父母恩德)은 호천망극(昊天罔極)이로다
조부모(祖父母)는 생아부모(生我父母)하시니 여부모무이(與父母無異)라

아버지는 하늘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다.

수고로이 나를 낳아 부지런히 젖을 먹여 힘들게 길러내니, 부모의 은덕은 하늘 같이 끝이 없다.

조부모는 나의 부모를 낳았으니, 부모와 다름이 없다.

“아버지는 하늘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다. 수고로이 나를 낳아 부지런히 젖을 먹여 힘들게 길러내니, 부모의 은덕은 하늘 같이 끝이 없다.”는 이 서사는 『시경(詩經)』에 뿌리를 둡니다. 이 경전에 실린 「다복쑥蓼莪」이란 작품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크다랗게 자란 저것은 다복쑥인가.

다복쑥이 아니라 개사철쑥이네

슬프고 슬프구나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고생하셨네[生我劬勞]



시경의 시를 원용하며, 부모의 은혜를 하늘같이 높다고 기리고 효도할 것을 강조하는 『경민편』 저자의 마음은, 이 책이 만들어지던 16세기 전반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던 심상(心象)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담은 책이나 시조가 만들어져 읽히고 불리어지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들 수 있는 책이 조선 초부터 읽힌 『명심보감(明心寶鑑)』입니다. 이 책의 「효행편(孝行篇)」에 위의 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명심보감』을 읽는 독자는, 부모의 은혜를 곡진하게 노래하는 「효행편(孝行篇)」 또한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길,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시니, 슬프다 부모여! 나를 낳으시기에 애쓰시고 수고하셨도다.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은 참으로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여러 오륜가(五倫歌) 또한 이 내용을 노래 가락으로 담았습니다. 오륜가는 오륜의 규범을 주제로 만든 시조 혹은 단가를 말합니다. 대체로 오륜을 쉽게 외우고 익힐 수 있게 지방관이나 양반들이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이 시기의 오륜가 중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노래는 1549년 명종 4년, 주세붕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 중 지어 황해도 지역민들에게 보급했는데, 부자유친을 다룬 내용은 『경민편』 1장과 표현이 거의 같습니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었다라면 이 몸이 없을 것이다
이 은혜를 갚고자 하니 하늘같이 끝이 없구나

부모장에 나오는 범죄와 처벌 규정입니다. 원문 구결과 번역을 붙여 읽어 보겠습니다.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모살 칙능지처사(謀殺則陵遲處死)하고 구타 칙참(毆打則斬)하고 매리 칙교(罵詈則絞)하고 불청교령(不聽教令)하며 불근봉양 칙개장일백(不勤奉養則皆杖一百)하고 부모(父母)를 고소 칙기죄지중(告訴則其罪至重)하니라

조부모와 부모를 의도하여 죽이면 능지처사(陵遲處死)하고,
조부모와 부모를 때리면 목을 베는 형벌[斬刑]을 내리며,



조부모와 부모를 꾸짖으면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絞刑]을 내린다.
가르쳐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힘써 봉양하지 않으면 장(杖) 100대를 친다.
부모를 관청에 고소하면 죄가 지극히 무겁다.

부모, 조부모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엄했습니다. 이는 이들 범죄가 '불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명률』에서는 가장 흉악한 범죄 10가지를 십악죄(十惡罪)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경중을 참작했지만, 최고로 가혹한 능지처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경민편』에서 거론한 위의 여러 죄는 모두 '불효'에 해당하므로, 능지처사 이하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부처장의 전문입니다. 원문 구결과 번역을 붙여 읽어 보겠습니다.

부처(夫妻)는 결연(結緣)하여 백년동거(百年同居)하나니 부수념처(夫須念妻)하고
처수순부(妻須順夫)하여 수유불협(雖有不協)이라도 부익인노(夫益忍怒)하며
처익치순(妻益致順)하야사 가도(家道)이 불패(不敗)하리라 시고(是故)로 부처화락(夫妻和樂)하면
영보궐가(永保闕家)하고 괴려불화(乖戾不和)하면 종치화난(終致禍亂)하나니라

남편과 아내는 연분을 맺어 백년토록 같이 산다.
남편은 모름지기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모름지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비록 서로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에 대한 노여움을 힘써 참고
아내는 남편에게 힘써 순종한다면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부가 화목하고 즐거우면 그 집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고,
서로 어긋나 화합하지 못하면 끝내 재앙과 분란이 생길 것이다.

부부는 성인 남녀가 혼인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입니다. 혼인은 두 성인 남녀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이 맺음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정치적 맥락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문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이 의례도 격식도 없이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결합을 야합(野合)으로 평가절하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경민편에서는 화락한 부부 관계가 집안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을 거론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기 적절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는 점에서 남편을 중심에 두는 방식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다른 태도를 요구하는 이러한 사고는 선진(先秦) 시기 이래 틀이 잡혀진 삼강오륜의 유교적 윤리 의식에서 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범죄입니다. 원문을 읽는 대신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두 가지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아내의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남편의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은 남색 선을 경계로 후반부에 나오는데, 붉은 원 아래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아내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서술된 분량으로 본다면 아내에 대한 규정이 남편보다 두 배 더 됩니다.

조선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고 위계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아내가 저지르는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입니다. 아내의 범죄는 모두 네 유형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 살해·구타·상해, 남편 배반 및 개가, 남편의 부모 및 조부모·남편의 친족 어른에 대한 범죄, 다른 남자와의 간통 등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이 특징적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의도하여 죽이면 능지처사한다. 남편을 때리면 장(杖) 100대를 치고, 남편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히면 목매달아 죽이며, 상처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면 목을 베어 죽인다.” 능지처사의 최고등급 처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입니다. 아내 살해 및 상해, 처의 부모에 대한 범죄 행위 등 두 유형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읽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때려 그녀가 죽게 되면 목매달아 죽인다. 아내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히면 또한 모두 죄를 지은 것이다.” 능지처사의 최고등급으로 처벌하는 아내의 남편 살해와는 비교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경민편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저지르는 범죄, 그들에 대한 처벌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저지르는 범죄는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남편의 범죄는 두 유형 밖에 없습니다. 아내에게 문제가 되는 개가와 간통이 남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경우, 시부모, 남편의 족친에 대한 범죄와 처벌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다음 강의는 『경민편』의 형제와 족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3 형제와 족친

지난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부모와 부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형제와 족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편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혈연관계 내에서의 교화와 범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내용을 배치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나'를 중심에 두고 '나' 밖의 것으로 관계를 확장해갑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 나와 같이 사는 아내가 다음으로 중요하며, 형제자매는 그 다음의 등급에 놓입니다.

족친은 같은 성씨 곧 동성(同姓) 8촌까지 언급했습니다. '동고조(同高祖) 8촌'이란 말이 있는데, 8촌은 모두 고조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대수로는 4대가 됩니다. 이는 주자가례의 조상 제사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이 책에서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최대 범위로 4대 8촌을 설정했습니다. 경민편에서 4대 8촌의 족친까지 혈연으로 이해하고 그 관계를 중시한 점은 주자가례의 예제 실천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15세기 말에 편찬된 안동권씨의 족보입니다. 이 시기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혈족에 대한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17세기 초, 신식(申湜)이 편찬한 가례언해의 사당도입니다. 사당은 제사를 지내는 건물인데, 4대 고조부까지 제사 자념을 선명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경민편』의 제3장 형제·자매의 번역문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형제와 자매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골육지친이니, 작은 이해 문제로 다투어서는 안된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여 서로 악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노비와 토지를 둘러싼 재산 분쟁은 길게 보면 이익이 되지 않으며, 셋째, 형제자매가 불화하면 향리에서 배척하고 나라에서는 법으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다르지만 기(氣)가 같은 혈친이니 서로 아끼고 공경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해를 다투어 불화를 겪는 형제·자매를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이때 김정국은 형제·자매간 불화를 일으키는 최대 요인이 재산 분쟁임을 거론했습니다. 조선에는 부모 재산의 증여·상속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분쟁은 늘 일어났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간의 분쟁에서 노비와 토지를 이야기한 것은 조선에서 상속 재산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이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가지는 현실적인 힘을 생각해보면, 이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지친(至親)의 사랑과 공경으로 해결하자는 경민편의 구상은 지극한 이상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그 이상론은 현실을 휘어잡는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장의 범법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재산 분쟁, 욕설, 구타, 법적 소송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형제·자매간 갈등의 핵심이 재산 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누군가 재산을 허위문서로 빼앗아 가지거나 또 모두 가지거나 하면, 장 100대에 도역(徒役)의 벌을 내리고,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면 장 80대의 처벌을 가한다.

형제 자매간의 갈등과 싸움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체로 나이 많은 형이나 언니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와 그들에 대한 처벌 위주입니다. “형제 사이에, 재물을 빼앗아 가지거나 모두 가지거나 하면, 장 100대에 도형의 처벌을 받고,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면 장 80대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형제 자매 모두에게 관련되는 규정도 제시했지만, 대부분 남녀의 동생이 형과 언니에게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이와 같이 동생들의 잘못을 더 많이 거론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규범 적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사이에도 위계가 작동했습니다.

네 번째 장인 족친장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나와 3촌, 나와 4촌에서 8촌이 친소 원근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한 사람의 자손임을 거론하고, 서로 공경하고 돌보며 싸우지 않고 지내기를 권유합니다.

『경민편』의 구성은 혈연에서 비혈연의 관계로 확장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족친’장은 혈연의 여러 관계에서 본다면 가장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3촌에서 8촌까지를 ‘족친’으로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거론하는 3촌부터 8촌까지는 부계(父系)만을 대상으로 했고 모계는 제외했습니다. 8촌은 4대조인 고조(高祖)를 같이 하는 관계입니다. 『경민편』에서 다루는 족친의 범위는 이른바 ‘동고조 팔촌(同高祖 八寸)’, 곧 고조를 같이하는 8촌까지입니다.

김정국은 이러한 관계를 두고 ‘같은 뿌리’, ‘동일한 근원’으로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곧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가 같고, 가지가 다르며, 물에 비유하자면 근원이 같고 물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 ‘동일한 근원’을 중시하는 의식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이것을 이 시기에 나타나던 주요 문화 현상과 연관 지어보면,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족보를 작성할 때 항시 가지는 생각과 맞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15세기 말 이래 여러 후손을 하나의 계통 속에 정리하는 족보 편찬 작업이 몇 성씨를 필두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중요한 족보로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족보를 만든 사람들은 족보를 만든 주요한 의미를 ‘같은 뿌리’, ‘같은 근원’ 확인하기에서 찾았습니다.

성현(成俔, 1439-1504)이 작성한 창녕 성씨 족보의 서문은 그러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성현은 “처음은 한 사람의 몸이지만, 아버지를 같이 해서 형제가 되고, 할아버지를 같이 해서 4촌, 증조할아버지를 같이 해서 재종(再從)이 된다. 고조를 같이하면 족(族)이라고 칭한다. 이로부터 점점 멀어져 상사가 생겨도 상복을 입지 않고 남처럼 된다. 그러나 그 시초를 따져 보면 모두 한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곧 나무가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는 만 갈래가 되고, 가지가 만 갈래지만 뿌리는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동고조 팔촌’을 하나의 족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민편』의 생각은 사대봉사(四代奉祀)의 실천을 내세운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예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자가례』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범위를 나로부터 4대 위 조상인 고조까지 잡았습니다. 이른바 4대 봉사입니다. 고조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 제사는 4대의 후손들 곧 나로부터 8촌까지를 포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조선의 현실에서 제사는 4대까지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을까? 이미 15세기에 『주자가례』가 보급되고, 『주자가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나타났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대까지 그러니 증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경국대전』 예전의 ‘봉사(奉祀)’조에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 서인(庶人)은 단지 부모 제사만을 지낸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관료와 관료가 아닌 서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3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계급 혹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민편』에서 '동고조 팔촌'을 강조한 것은 현실에서 굳어져 있는 관습의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친족 질서를 만들어 내자는 의식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속을 선도하는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경민편』에서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범죄인 향촌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4 향촌에서의 생활

지난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형제와 족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민편』에서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범자인 향촌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편에서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범죄는 1절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향촌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리장, 근업장, 저적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장에서 다루는 범죄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도 대명률과 관계가 없으며, 조선의 사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러 장에 대한 관심은 16세기 김정국이나 기묘사림이 지방, 지방민들의 존재와 역할을 주목했던 사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이념과 방법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인리장, 근업장, 저적장 등의 내용은 그러한 맥락에서 살피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여섯 번째 인리장입니다. 세 가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은 나와 함께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서로 있는 것 없는 것을 도우며 사니, 그 의리는 친척과 같다.
약한 사람을 침노하여 해치지 말며, 신분이 높고 나이 든 사람을 능욕하지 말며,
서로 곡진히 대우하여 힘써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웃 사이에 불화하여 환난(患難)이 있어도 구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도 도와주지 않으면 서로 원수가 되어,
끝내는 헤아리지 못할 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이를 해결하며 살기를 기대하되, 신분과 장유의 질서는 엄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침범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기대하는 『경민편』의 생각은, 16세기 전반 향약(鄉約) 시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던 기묘사림의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덕을 베푸는 선행을 서로 권장하는 덕업상권(德業相勸), 잘못된 행동은 서로 규제하는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의로서 서로 교류하는 예속상교(禮俗相交),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주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네 조항을 갖춘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조선 전역에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웃에 일어나는 어려움, 환난을 서로 구할 것을 권하는 제6장의 내용은 이 향약의 정신과 겹쳐 있습니다. 여기서 향약의 지향 혹은 이상이 『경민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리장에서의 법 규정입니다. 원문의 구결과 번역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규정에 실려 있는 사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포괄적입니다.

호강지인(豪強之人)이 침손어민(侵損於民)하면 전가입거(全家入居)하고,
비천지인(卑賤之人)이 능범존속(凌犯尊屬)하면 역개유죄(亦皆有罪)하니라.

호강(豪強)한 사람이 백성을 침해하여 해를 입히면 전 가족을 입거(入居)하는 벌을 내린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능멸하며 침범하면 또한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인리장에서 거론하는 이웃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호강(豪強)’한 사람 곧 세력 있는 자의 일반 백성 침해, 그리고 향촌 구성원들의 신분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두 가지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강자를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분과 관련된 일은 낮은 신분의 높은 신분에 대한 저항과 능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규정에서 두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호강(豪強)’은 지방 사회에서 강한 힘을 소유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토호(土豪)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의 법질서와 공적 권위를 훼손하고 약한 ‘소민(小民)’을 침해하는 존재, 그래서 국가 권력과 갈등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처지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권력의 형성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의 호강한 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경민편에서 호강한 사람들을 규제하는 규정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사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호강한 사람에게 내린 전 가족 입거(入居)의 벌은 조선의 독특한 형벌입니다.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고도 하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 가족 입거는 3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평안도 함경도 등지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인구가 희박한 북쪽의 변방 지역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농민들을 뽑아서 강제적으로 이사 가게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전가사변하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인도 많았습니다.

‘호강한 자가 잘못을 범하면 전가 입거한다’는 경민편의 법 규정은 이런 전통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근업(勤業) 장입니다.

대체로 굶주리고 빌어먹는 자는 모두 농업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다.
비록 한 조각 묵정밭[陳田]이라도 힘써 부지런히 경작하라.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며 떠돌아다닐지라도,
나는 배부르고 따뜻하며 평안하여 한 해를 마치도록 근심거리가 없다.

실려 있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농사를 부지런히 지으면 굶주려 결식(乞食)하는 위기를 피할 수 있으니, 한 조각 묵정밭이라도 힘써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유리결식의 위기와 안정된 생활을 들어 농사일을 독려하는 경민편의 방식은 농사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보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묵정밭을 버려두지 않는 지방민의 착실한 경작은 그들 개개인에게도 필요했지만, 지방 사회나 국가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기반 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모든 부면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국가의 붕괴를 방지하고 체질을 강하게 유지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경민편은 그러한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8장의 법 규정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묵정밭에서의 수세, 농업 외 산업의 근면한 경영, 놓고 먹을 경우, 도적으로 지목당할 가능성 등입니다.

실제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묵정밭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정도입니다. 인신 구속은 아니니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점에서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권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농사일 외에도 잡업(蠶業)이나 상업 행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방에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함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은 실제 도적으로 지목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도적의 무리에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세 가지 내용에서 자기 생업에 열중하며 안착하기를 바라는 지방 권력의 강렬한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곡식을 쌓아두는 저적(儲積)장입니다.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곡식을 낭비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가을걷이한 이후 곡식이 흔한 것을 믿고는 마구 써버리는 까닭에 다음 해 봄에서 여름의 기아와 궁핍함을 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안동과 북도의 사례를 들어 절약과 낭비가 가져올 효과를 설명하고, 곡식을 절약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김정국은 안동은 절약의 모범, 북도 지역은 낭비의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곡식을 쌓아두면 어떤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다는 제8장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업 생산을 늘리고 건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제시했습니다.

제6장과 마찬가지로 이 장은 범죄를 규제하고 방비하는 것보다는 지방민이 일상의 경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도 “모여서 술을 먹는 등 낭비하면 또한 죄가 된다.”는 문장으로 간단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쳐 지방 사회 통치에 도움을 받으려고 만든 책인 『경민편』에 실려 있는 내용은 사실적입니다. 책의 주제를 구성하는 내용은 중국의 고전에서 온 것도 있고, 또 『대명률』에서의 법 규정을 따오기도 했지만, 실제 내용은 조선의 현실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동 사람들은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북도 지방 사람들은 흥청망청 낭비한다는 본문의 짧은 대목은, 16세기 전반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조선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거론하는 북도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물산이 풍부했던 평안도 지역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동 사람들을 근면하고 건실하다고 여기고, 북도 사람들은 낭비벽이 심하다고 거론하여 두 지역의 삶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경민편』의 서술은 저자 김정국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널리 공유했던 공통된 인식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이 시기 북도의 풍속에 대한 언급은 쉽게 찾을 수 없는데, 안동 사람들이 근검절약한다는 평가는 당시 조선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에서는 안동과 이 지역의 습속에 대해 “땅이 메마르고, 풍속은 근면함과 검소함을 숭상하고 농상(農桑)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성종 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안동 사람들은 “근면과 검소함을 숭상하고 농상(農桑)에 힘쓴다[尙勤儉, 務農桑], “농사일에 힘쓰고 아껴 쓴다[務本節用]”고 했습니다.

1486년 성종 17년, 전라도 진휼사(全羅道賑恤使)였던 이극돈(李克墩)의 발언 또한 유사합니다. 그는 조선의 낭비 습속과 대비하여, “안동의 백성은 검소하고 아끼는 것을 숭상하는 풍속이 있어서 한 해의 수확을 총계(總計)하여 이듬해의 종자와 식량이 될 만큼 미리 계산해 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올 해 살림의 비용으로 삼기 때문에, 비록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있게 되더라도 굶주려서 서로 버리게 되는 근심이 없게 됩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경민편』의 도적, 살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5 도적, 살인

지난 강의에서는 『경민편』에서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범죄인 향촌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도적, 살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편에서 거론한 가장 강력한 범죄는 도적과 살인입니다. 지방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나아가 국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명률에는 모반, 역모 등의 대규모 반란 행위도 도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경민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방민의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탈을 중시한 경민편의 기획 의도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살인은 살해자와 피살자가 얽혀드는 대사건입니다. 누구라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지만, 살인자를 분명하게 밝혀서 피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 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실현하려 했습니다. 세종대 이래 무원록(無冤錄)을 활용하며 살인 사건을 처리하려 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보시는 사진은 정조대 간행한 무원록언해(無冤錄諺解)입니다.

열두 번째 도적 장입니다. 내용은 간명합니다. 구걸할지언정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일시 호의호식하더라도 결국 들통나 패가망신을 면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적이 되는 이유를 추위와 굶주림, 곧 가난에서 구하는 『경민편』의 시각은 정확합니다. 먹고 입을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또 강탈합니다.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는 옛 속담은 그래서 나왔을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본시 그러해서, 또는 심심해서 하릴없이 도적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량했던 사람이 도적이 되는 일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배고픈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지면,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일을 일삼는 사람은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배고픈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사회적 정치적 과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민편에서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민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니, 정책을 이야기할 수는 없던 것입니다.



경민편은 도적이 될 상황으로 내몰릴 것 같으면 차라리 거지가 되어 구걸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날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는 참으로 구차하여 지방관으로서 제시할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김정국은 16세기 현실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뒷날 17-18세기 조선 사람들이 『경민편』의 가치를 주목했을 때에도 이러한 사고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선에는 거지가 많았습니다. 17세기 조선에 표류하여 10여 년간 살았던 하멜도, 1662년 대기근이 들자 겨울 한철 온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구걸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하멜은 이때, '빌어 먹더라도 차라리 거지가 더 나은'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흉년 때문에 여벌의 옷이 없었다....
좌수사에게 청원하여 3일간씩 교대로 우리들 중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식량을 구하러 다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일은 결국 잘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15일 내지 30일 가량 외출하여 구걸하고, 얻어 온 것들을 똑같이 분배했다.
이는 현 좌수사가 이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랏님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가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만큼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내몰려 도적질하는 사람을 두고 차라리 구걸하라는 경민편의 제안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이 시기 조선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절도와 강도로 구분하여 처벌 규정을 실었습니다. 절도에 관한 처벌은 두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도를 했을 경우 장형을 가하고, 장물이 많으면 신분을 낮추어 절해고도의 노(奴)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노비로 지칭하지 않고 남자 종을 뜻하는 '노'라고 한 것은 '절도범은 남자'라는 관념 때문이었던 까닭으로 보입니다. 실제, 절도에 나서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자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경민편』의 처벌 규정은 『대명률』과 『경국대전』 두 법전의 내용을 섞어서 축약했습니다. 『대명률』의 '절도' 조에서는 좀도둑과 장물의 규모가 큰 도둑은 형벌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해 두었는데, 『경국대전』에서는 『대명률』의 큰 도둑에 해당하는 자는 외딴 섬으로 보내어 영원히 '노'로 삼도록 했습니다. 『대명률』의 내용을 준용하면서도 조선의 형편에 맞추어 변형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경민편』은 또한 절도법에 대해서는 자자형(刺字刑)을 가한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자자형은 그가 지은 죄명을 묵으로 몸에 새겨두는 형벌로, 한번 새기면 평생 지우지 못하고 남에게 보여야 하는 ‘주홍 글씨’였습니다. 도둑에 대한 자자형의 구체적인 방식은 『대명률』에서는 절도의 초범은 모두 오른팔에 ‘절도(竊盜)’ 두 자를 자자하고, 재범은 왼팔에 ‘절도’라고 자자하며, 3범이면 교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경민편』에서 절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자(刺字)’한다고 했을 때, 그 새기는 내용이 ‘절도(竊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에서는 자자를 하게 되면, 자자한 곳을 봉(封)하여 서명, 날인 한 후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자한 후 곧바로 풀어주면, 글씨를 새긴 먹을 빼내어 흔적을 지우는 일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자할 글자의 크기는 『대명률』에 따랐습니다. 매 글자당 한 번의 길이는 1촌(寸) 5푼(分), 매 획(每劃)의 넓이는 1푼 5리가 기준이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면 남들이 뚜렷이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자자형은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인 1740년 영조 16년에 폐지되었으며, 그 사실이 『속대전』에 수록되었습니다. 자자형 폐지는 가혹한 엄형을 폐지한다는 영조가 취했던 일련의 조치 속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영조는 1724년 영조 즉위년, 1733년 영조 9년에 각기 용의자를 고문할 때 쓰던 형인 압슬형, 낙형(烙刑)을 폐지했고, 1744년 영조 20년에는 범죄자를 전가사변하는 형을 폐지했습니다.

『경민편』에서 강도의 경우는 ‘우두머리와 하수인을 불문하고 모두 목 베어 죽인다’고 했습니다. 『대명률』에서는 재물을 얻지 못했을 때와 얻었을 때로 나누어 처벌 규정을 정해 두었는데, 재물을 얻는 경우에는 주범과 종범을 불문하고 모두 참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경민편』의 처벌 규정은 이를 따른 것입니다.

조선에서 절도와 강도에 대한 처벌은 엄격했습니다. 『경민편』에서는 절도와 강도가 나오는 것이 굶주림과 가난에서 오는 것임을 직시하면서도, 그 대책을 구결하는 것 그리고 절도와 강도를 하게 되면 끝내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 이상으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도·절도 행위는 치안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김정국이 차라리 구결할지언정 강도·절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조선의 백성들이 굶주림을 피할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보다 엄혹했던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관내의 안전한 치안유지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은 양립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어쨌든 김정국에게서 백성이 강도·절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와는 달라 절도와 강도를 저지른 사람의 몸에 '절도', '강도'를 자자하여 평생의 형욕으로 삼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도적이면 영원한 도적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열세 번째 살인(殺人) 장입니다. 구결의 원문과 번역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명(人命)이 지중(至重)이라, 피아무간(彼我無間)이어늘,
포악지인(暴惡之人)이 흑인탐재(或因貪財)하며 흑인수원(或因讎怨)하야
모야무인지중(暮夜無人之中)에 잠행살해(潛行殺害)하야 자이위득계(自以爲得計)하나니
상천임하공소(上天臨下孔昭)하시고 귀신재방(鬼神在儼)이라
조만발로(早晚發露)하야 필몽잔열(必蒙殘孽)하나니
장살무죄지인(戕殺無罪之人)하고 보전평생자(保全平生者)이 자고미유(自古未有)하나니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하니, 그 중요함에는 너와 나 구별이 없다.
포악한 사람이 혹 재물을 탐내거나 혹 원한을 갚고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해를 하고는 스스로 문제없다고 안심하지만,
하늘이 위에서 환히 내려다보고 귀신이 옆에 있으니,
조만간 사실이 밝혀져 반드시 재앙을 입게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평생토록 편안한 삶을 보전한 자는 예로부터 존재한 적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 장에서는 재물을 탐내어 일으킨 살인, 원한을 갚기 위해 저지른 살인 등에 한정하여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은 서로 분노한 감정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살인 등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타인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저지른다는 점이 여기서 다루는 살인의 특징입니다.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목숨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목숨 또한 귀중하므로, 그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은 무엇으로 질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목숨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이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죽음을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상명(償命)이라고 합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들통나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 경민편에서는 누군가 몰래 살피는 존재 때문에 살인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는 바로 상천(上天), 곧 하늘과 귀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눈으로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경민편』이 보기에 살아 있는 감각을 가진 초공간 초시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어 살인이 드러나니 절대 살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 실제 이유는 이들 때문입니다.

상천과 귀신을 거론하는 『경민편』의 모습은 인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대면할 때,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던가를 잘 보여줍니다.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초월의 힘을 가진 점에서 이들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떨치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은 어떤 논리와 어떤 설명보다도 이들이 실존하며 밝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생하게 의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천과 귀신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처럼 실감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협박인 듯 허구인 듯 싶지만, 이들은 이 시기 조선 사람들에게 살아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경민편』에서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론하는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목숨이 귀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목숨 또한 귀중하다는 논리가 일반적인 가치관에 기댄 것이라면, 상천과 귀신의 초월적 존재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논리 이전의 세계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들 성격을 달리하는 두 차원의 세계는 공존 가능한가? 『경민편』에서는 아무런 주저 없이 동시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민편』의 저자에게서 두 차원의 세계가 서로 부딪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동 시기 조선 사람들이 가지는 심상(心象)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천과 귀신은 눈과 귀를 가지고 우리 옆에 늘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을 동시에 살펴서 화와 복을 내리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살인장에서는 몇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 규정을 거론했습니다. 모의 살인, 저주 살인, 독약을 이용한 살인, 독충 독사를 이용한 살인, 위험한 곳을 속여 일으킨 살인 등입니다. 이들 살인은 과실 치사나 상해 치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들입니다. 죄질이 심하게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어느 경우든 해당자는 참형 혹은 교형의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민편에서 거론하는 다양한 형태의 살인은 사실을 근거로 한 국가 권력의 공식적인 판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지방 최일선에서 이를 책임진 이는 수령이었습니다. 민사상 형법상의 법적인 사건은 모두 그가 처리했습니다. 수령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수령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여 용의자를 확인하는 한편, 시체를 검시(檢屍)하고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시는 검험(檢驗)이라고도 했는데, 시체를 원형대로 검사하는 검안(檢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검시 보고서는 참고가 될 만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에 검시장식(檢屍帳式)에 따라 검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세종대에 간행된 『신주무원록(新註無怨錄)』을 활용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원나라 때의 인물 왕여(王與)가 만든 『신주무원록(新註無怨錄)』을 보완한 것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법식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어 살인 사건 처리에 크게 유용했습니다.

이후 영·정조대에는 이를 수정 증보하여 『증수무원록(增修無怨錄)』을 제작하고, 한글로 풀어서 『증수무원록언해』라는 이름으로 간행했습니다.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변사체가 자살인지, 살해되었는지, 살해되었다면 구타당해 죽었는지, 칼에 찔려 죽었는지, 목 졸려 죽었는지, 아니면 독살당했는지 등의 여부를 판별하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목격자의 존재 여부, 시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 등도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해 두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죽은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하는 점도 밝혀야 할 문제였습니다. 『경민편』에서 들고 있는 다양한 살해 유형은 정밀한 조사와 수사를 거친 뒤에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를 밝힘에 유용한 것이 『신주무원록』과 같은 책의 지혜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민편 읽기를 마무리합니다. 경민편은 지방민들이 범법과 일탈을 피해 살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민편의 편찬자 김정국은 지방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부차적이었습니다.



교화를 근본에 두고 법률적인 형벌을 말단에 두는 이러한 사고는 유교의 정치론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조선 위정자들의 지향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6세기 초에 편찬된 경민편이 19세기 말까지 활용된 까닭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입국을 표방하며 국가를 운영했고, 그 속에서 살았던 백성들은 긴 시간에 걸쳐 유교화되어 갔습니다. 『경민편』은 그러한 역사 과정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일부 알려 주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민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4

Reading Gyeongminpyeon

4-1

It Is Deluding People to Punish Them without Teaching Them

Hello, students. I'm Jeong Ho-hun,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titled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about Gyeongminpyeon. This is the fourth lecture, and I would like to proceed with the theme of 'Reading Gyeongminpyeon.' This topic is a follow-up to the last lecture's 'Understanding Gyeongminpyeon.'

Kim Jeong-guk, the compiler, made this book to guide the local people of Joseon to live without committing crimes. Gyeongminpyeon went through several additional changes and was used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is book has many characteristics. The most remarkable of them is, though, that it shows different formats, compositions, and contents depending on the time of publication. Another feature of this book is that the content is organized in a way that local residents who did not have a high level of education could learn and understand easily. The logic or terminology used is not that difficult, which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 text is written in Literary Chinese, but only with a Korean translation attached.

I hope you will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Joseon in various ways through reading Gyeongminpyeon. This book will tell you what ideas and methods Joseon's authorities used to control the local people and maintain order. Furthermore, it will show you what kind of letters they used to convey to the people what they wanted to tell them. The lecture is based on Yi Hu-won's version from the mid-17th century. It is a neatly done woodblock print that is easy to read.



Every country in history has defined crime and punished criminals accordingly. After foundation, Joseon also established principles to deal with crimes and criminals and ran the country based on them. Codes such as Gyeonggukdaejeon and the Literal Explanation of the Great Ming Code contain the crimes set by Joseon and their punishment methods.

Gyeongminpyeon is a book about the crime and punishment of the people. Kim Jeong-guk divided Joseon's crimes into 13 types and organized them into 13 chapters. Each chapter covers one type of crime. However, Kim Jeong-guk reorganized the various crimes and their punishments used in Joseon in his own way, not repeating the way they were in the law. If you learn how Kim Jeong-guk organizes Gyeongminpyeon and why he did so, I think you will understand the reason it was used in Joseon for so long.

In the preface, 'deluding people,' means setting up a net of law and waiting for the people to be caught. You can further understand this in detail in the following talk.

The crimes and their punishments covered in 13 chapters of Gyeongminpyeon are all related to Gyeonggukdaejeon and the Great Ming Code. However, there are many interesting aspects in the nature and arrangement of the 13 chapters.

If you divide the chapters by theme, it's as follows: crimes related to the family in four chapters of Parents, Husband and Wife, Siblings, and Relatives; crimes related to slavery in one chapter of Slave and Master; crimes in the villages in one chapter of Neighbors; general crimes among members of the villages in four chapters of Larceny, Fighting, Adultery, and Homicide; crimes related to farming and saving in two chapters of Diligence and Saving; and crimes related to government offices or public authorities in one chapter of Fraud.



These six types of crimes can again be divided into items marked with B, which have the same entry in the Great Ming Code and items marked with A and C, which don't. Fighting, Adultery, Fraud, Larceny and Homicide are set as the subject of crime in the Great Ming Code and provisions for them are presented. Gyeongminpyeon also adopted the same way. The remaining items are not topics set in the Great Ming Code. Although Gyeongminpyeon is said to use the Great Ming Code, some of its entries are listed in the Code and others are not.

If you want to fi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Gyeongminpyeon, you should pay attention to items A and C, which are not listed in the Great Ming Code. The crimes marked with A were classified by the criminals, that is, the subject of behavior such as parents and children.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murder, abuse, or beating that may occur between them are not presented in the category. However, these crimes are described in the section, and all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llowed the Great Ming Code.

Crimes marked with C are too ambiguous to be considered as crimes. The chapter Neighbors emphasizes the need to keep the order of status and give help among members of the village, but there are no specific punishment regulations, and even if there are, it mentions the sentence set in Joseon. The chapter Diligence recommends to work diligently on the farm and the chapter Saving tells you not to waste grain after a harvest. They do not provide a separate punishment regulations, either.

Considering this, we can conclude that Kim Jeong-guk did not make Gyeongminpyeon just to inform the local people of crimes that can occur on a daily basis, crimes that can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Great Ming Code, and to teach them to avoid those crimes. There was something he wanted to emphasize.

Kim Jeong-guk lays emphasis on blood ties from parents to family,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living in accordance with moral laws, and advocates helping each other in the village, keeping the order of social status, and focusing on farming and not wasting. This is not only related to the ideal of Kim Jeong-guk as an individual, but also to what Gimyo Sarim valued and tried to realize through policies.



Gyeongminpyeon was made with a special awareness and purpose. Kim Jeong-guk's thoughts in compiling Gyeongminpyeon are well presented in the preface. The preface clearly shows Kim Jeong-guk's thou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ok. He explains three things in this article.

First, he argues that if they punish people for the crime they committed without teaching them the meaning of crime and law, it would be nothing more than forcing them to become criminals.

"The punishment and the law were all made out of the benevolence of the king of old time who loved his people.

Wouldn't it be more of 'netting to the people' if they were to be detained by law without leading them to morality first?

How can people, as foolish as insects, know that morality is important, and how can they know the deep thoughts that made the law?

If the people who are stupid, like the dumb or the deaf, who are foolish enough to rush only to clothes and rice, don't realize they're breaking the law and commit a crime,

the official in charge looks at the law and ties them up like throwing a net to catch sparrows and setting up traps to catch beasts. How can you make them stay away from evil and do good?"

Kim Jeong-guk is positive about the existence of punishment and law. Punishment during this time was in some ways violent and harsh. However, Kim Jeong-guk admits that the old king made the punishment out of his love for the people.

At the same time, he says that if they try to rule the people only by punishment without leading them to morality first, it was an act of 'netting to the people.' He thinks that if they punish people for committing a crime without telling them the reason for making law and punishing crimes, it would be the same behavior as throwing a net to catch a sparrow or setting a trap to catch a beast.



This metaphor can be found in the thoughts of Mencius. Mencius said that if they were severely punished for committing crimes for food and living without providing conditions for the people to live well, it would be the same as catching birds with a net. Kim Jeong-guk used this to emphasize that people should not be left to commit crimes without knowing the problem of crime.

Second, he emphasizes that the local people should read Gyeongminpyeon to learn the root and reasons of things and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law, so that they can get close to good and stay away from evil.

"While writing this book, I always discussed reason by looking at the basics because I wanted the people to feel it with their hearts and be motivated, and I cited the law as evidence because I wanted them to avoid evil with fear.

And I used simple words and plain sentences to make it easy for them to understand without learning."

Kim Jeong-guk's idea is that if you know the fear of the law, you will think that you should not commit a crim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o realize the fundamental reason why some things are defined as crimes subject to harsh punishment. For this purpose, Kim Jeong-guk tried to write the book in easy and ordinary words and sentences so that local people, without profound knowledge, could read the book.

Third, he insists that the Mongmin-gwan, or the Governors, should do their best to change the customs of the people with this book. He urges that, since the main users who will actually utilize this book are none other than the governors of the counties and cities, so they should actively use it. He says as follows:

If you don't do your best to lead the people and change the customs, that is by no means what I want as the compiler of this book. Isn't it also something that we, leaders of peopl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e local system of Joseon divided the whole country into eight do (provinces), and each province had ju (large counties), bu (major cities), gun (counties), and hyeon (small counties). A bureaucrat who governs the province is called Gwanchalsa or Gamsa. Below that, the leader of the ju, bu, gun, or hyeon was generally called Suryeong. The Governor, or Gwanchalsa, was in charge of supervising the leaders, or Suryeong, and the politics of gun and hyeon were actually supervised by Suryeong. So the Suryeong was also called Mongmin-gwan (leader of people).

Kim Jeong-guk, who was the Governor of Hwanghae-do, compiled and published Gyeongminpyeon, but it was Suryeong who was responsible for actually distributing the book to Hwanghae-do residents and let them learn it. What Kim Jeong-guk means when he says 'the leader should keep in mind' was this situation.

Gyeongminpyeon was a book to help Mongmin-gwan, or the leader of gun or hyun, to govern the region and educate the local people. It can be said that it was a necessary tool for Mongmin-gwan to perform their duties. However, Gyeongminpyeon was very different from a mongminseo (a book for leading people), which directly targets the leader. A mongminseo summarizes the mindset that Mongmin-gwan must have and what to pay attention to while governing gun or hyeon, so it was suitable for Mongmin-gwan to use as a guideline.

Mongminsimgam (Exemplary Mindset of the Leader) is the representative book referenced by local officials of Joseon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is book was compiled by an official named Zhu Fengji of the Ming Dynasty, and in Joseon, it was introduced and used during King Taejong's reign. On the screen you can see a copy publish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In the next lecture, we will look at the chapters of Parents and Husband and Wife of Gyeongminpyeon.



4-2 Parents and Husband and Wife

In the last lecture, we explored the theme, 'It Is Deluding People to Punish Them without Teaching Them.' In this lecture, we will look at the chapters, Parents and Husband and Wife of Gyeongminpyeon.

As I said earlier, Kim Jeong-guk considered the blood ties between parents, couples, siblings, and relatives particularly important in Gyeongminpyeon. In Confucian tradition, blood ties between parents and family have always been valued, but in Joseon, this began to be especially emphasized in the early 16th century. This is related to the will of aristocrats at this time to create families and clans that can exert their power socially without the support of state power.

This was the reason why literature such as the Elementary Learning, the Vernacular Explanation of Upright Customs, and Zhu Xi's Family Rituals received attention and was widely used during this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minpyeon seem to reflect this fact.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Parents chapter. I'll read the original text with gugyeol and the translation of it.

부여천(父如天)하시고 모여지(母如地)라 구로생아(劬勞生我)하샤 신근유포(辛勤乳哺)하시며 간난 양육(艱難養育)하시니 부모은덕(父母恩德)은 호천망극(昊天罔極)이로다 조부모(祖父母)는 생아 부모(生我父母)하시니 여부모무이(與父母無異)라

Father is like the sky and mother is like the earth. They gave birth to me with all the pains, diligently breastfed me, so the grace and virtue of parents are as endless as heaven. My grandparents gave birth to my parents, so they are no different from my parents.



This narrative of “Father is like the sky and mother is like the earth. They gave birth to me with all the pains, diligently breastfed me, so the grace and virtue of parents are as endless as heaven.” is rooted in the Classic of Poetry. In this book, a poem titled Mugwort sings the grace of parents as follows.

Is that mugwort that grew tall?
It's not mugwort but wormwood.
How sad and sad, my parents.
They had trouble giving birth to me.

The author, using a poem from the Classic of Poetry and honoring the filial piety for parents whose grace is as high as the sky, seems to have used one of the widely spread examples of imagery in Joseon society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when the book was made. It is easy to find books or sijo with similar expressions made, read, and sung during this period.

An exemplary book you can think of would be the Mingxin baojian (Valuable Mirror for Illuminating the Mind), which has been read since early Joseon. The above poem is cited in ‘Hyohaengpyeon (the Chapter of Filial Piety)’ of this book. Readers of the Mingxin baojian would also have engraved Hyohaengpyeon deep in their hearts, which sings the grace of their parents. The Classic of Poetry says, “My father gave birth to me and my mother raised me. How sad, my parents! You have worked so hard to bear me. I want to repay their grace, but the wide sky is indeed endless.”

A number of varieties of Oryun-ga (Song of the Five Bonds) that were made in the mid-16th century also incorporated this into a tune. Oryun-ga is a sijo or short song made with the theme of the norm of Oryun (Five Constant Virtues). In general, local officials and aristocrats made and distributed them so that people could memorize and learn Oryun easily.





Let me present one of the Oryun-ga from this period, written by Ju Sebung (1495-1554). This song was composed and distributed to the local people of Hwanghae-do in 1549, the 4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when Ju Sebung was the Governor there, and the part that represents the theme of affe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almost the same as Chapter 1 of Gyeongminpyeon.

My father gave birth to me and my mother raised me.
If it weren't for my parents, my body would not be.
I want to repay their grace and virtue, but there's no end just like heaven.

Now, this is the crimes and the punishment regulations in this chapter. I'll read the original text with gugyeol, followed by its translation.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모살 칙능지처사(謀殺則陵遲處死)하고 구타 칙참(毆打則斬)하고 매리 칙교(罵詈則絞)하고 불청교령(不聽敎令)하며 불근봉양 칙개장일백(不勤奉養則皆杖一百)하고 부모(父母)를 고소 칙기죄지중(告訴則其罪至重)하니라

If you murder grandparents or parents intentionally, you will be dismembered to death, if you hit your grandparents or parents, you will be beheaded, and if you scold your grandparents or parents, you will be hanged. If you don't do what they told you to do and don't work hard to support them, you will get 100 jangs (flogging with sticks). Suing parents to the government office is an extremely serious crime.

The punishment for committing crimes against parents or grandparents was severe. This is because these crimes are categorized as 'filial impiety.' The Great Ming Code defines the 10 most heinous crimes as ten evils, and the corresponding punishment,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can be the harshest one, dismemberment. Since all of the above crimes mentioned in Gyeongminpyeon correspond to 'filial impiety,' heavy punishment including dismemberment was imposed.

Now, this is the full text of the Husband and Wife chapter. I'll read the original text with gugyeol, followed by its translation.



부처(夫妻)는 결연(結緣)하여 백년동거(百年同居)하나니 부수념처(夫須念妻)하고
 처수순부(妻須順夫)하여 수유불협(雖有不協)이라도 부익인노(夫益忍怒)하며
 처익치순(妻益致順)하야사 가도(家道)이 불패(不敗)하리라 시고(是故)로 부처화락(夫妻和樂)하면 영보궐가
 (永保闕家)하고 괴려불화(乖戾不和)하면 종치화난(終致禍亂)하나니라

Husband and wife tie the knot and live together for a hundred years. A husband must by all means care for his wife and a wife must by all means obey him. Even if there are differences, the husband should try to suppress his anger toward his wife, And the wife should try to obey her husband, so that the order of the family does not break down. Therefore, if the couple is happy and harmonious, the family can be preserved forever, but failure to harmonize with each other will eventually lead to disaster and conflict.

Husband and Wife is a relationship between an adult man and a woman through getting married. Wedding is a ceremony that socially recognizes the union of an adult man and a woman. It's also a highly sophisticated cultural act that takes place on a very complex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That's why the people of old times devalued the union between men and women done without a ceremony or formality as collusion.

Gyeongminpyeon emphasizes that a harmonious relationship of the husband and wife is the way to maintain the family for a long time. And it mentions the husband's care for his wife and the wife's obedience to her husband as the way to achieve this. The husband and the wife should treat each other with an appropriate mind and attitude, and what was required of the husband was separated from that of the wife.

It puts the husband at the center, by emphasizing the wife's obedience. This idea of demanding different attitudes from husbands and wives to protect family harmony came from the Confucian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Sangang Wuchang (Three Fundamental Bonds and Five Constant Virtues), which was taken shape from before the Qin Dynasty.



This is the crime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Instead of reading the original text, let me show you the picture. Two points stand out. First of all, it mentions the wife's crime and the punishment for it first. The husband's crime and punishment for it appears in the second half, bordering on the navy line, the part under the red circle. Also, there are more things related to the wife. In terms of the amount described, the regulation on wives is twice as much as that on husbands.

You can guess what the positions of husband and wife were like in Joseon. This is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was not horizontal but hierarchical. I'll tell you the details on the next screen.

Let me see the translation. This is the crime committed by a wife and the punishment for it. The wife's crimes are mentioned in four types in total: Killing, beating, or injuring the husband; betraying the husband and re-marrying another man; crimes against the husband's parents, grandparents, or relatives; adultery with another man.

The first type among these is distinctive. "If the wife intentionally kills her husband, she will be put to death by dismemberment. If she beats her husband, she will get 100 flogs, if she injures him badly, she will be hanged, and if he dies because of the wound, she will be beheaded." You can notice the highest grade punishment, dismemb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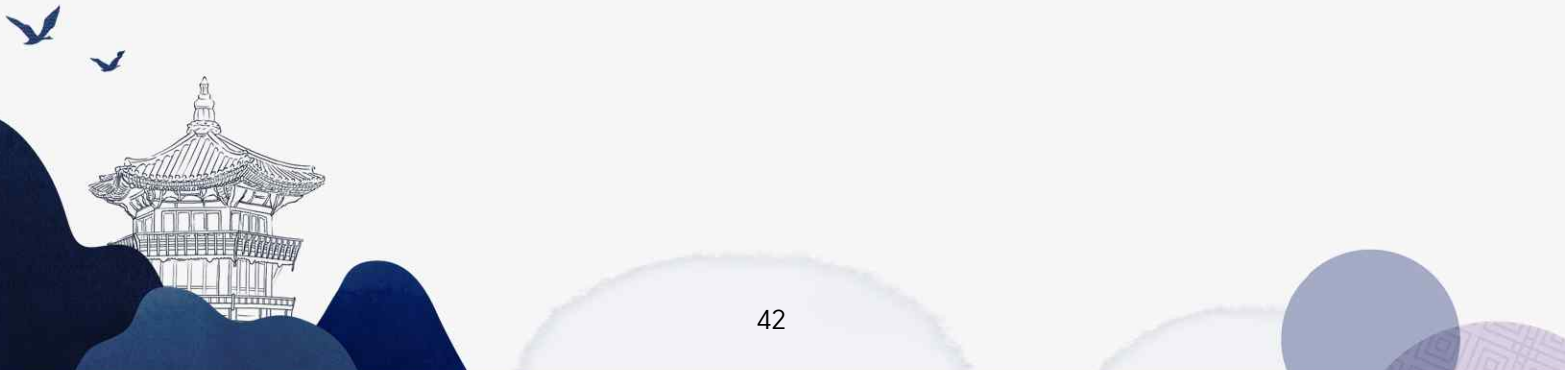
Now, this is the crime committed by a husband and the punishment for it. It mentions two types: killing and injuring the wife, and criminal acts against her parents. Let's read the first type. "If a husband hits his wife and she dies, he will be hanged. If he injures his wife badly, all of it is also a sin." You can see the difference from the punishment for killing a husband, which is the highest grade, dismemberment.





As we saw earlier, in Gyeongminpyeon, the crimes committed by husbands and those by wives and the punishment for each of them were very different. I've summarized it in a table. There are four types of crimes committed by wives, but there are only two types of crimes by husbands that correspond to them. Re-marriage and adultery, which are criminal acts for the wife, are not a problem for the husband. In the case of wives, crimes against their parents-in-law or husband's relatives and the corresponding punishment are defined in detail, and the punishment is severe.

In the next class, we will look at the Siblings and Relatives chapters of Gyeongminpyeon.





4-3 Siblings and Relatives

In the last class, we looked at the chapters of Parents and Husband and Wife of Gyeongminpyeon. This class, we will look at the chapters of Siblings and Relatives of Gyeongminpyeon.

Chapters 1 through 4 of Gyeongminpyeon deal with the issue of enlightenment and crime within the kinship. If you look at the way this book arranges and organizes the content, it expands the relationship to something outside of 'me,' with 'I' at the center. According to this framework, parents are the most important, the wife who lives with me is the next, followed by siblings.

As for relatives, those who are palchon (third cousin) or closer, with the same family name, are mentioned. There is a saying 'donggojo palchon,' which means palchon are all descendants of the same great-great grandfather. They are the fourth generation of one man. This is consistent with the scope of ancestral rites in Zhu Xi's Family Rituals. This book sets four generations and third cousins as the maximum range for the people to perform ancestral rites. The reason why Gyeongminpyeon recognizes blood ties as including those up to 4 generations and third cousins, and underlines relationship within them was because the author was mindful to practice the examples of Zhu Xi's Family Rituals.

The picture on the screen is a genealogy of the Andong Gwon clan, compiled in the late 15th century. You can get a glimpse of the idea of blood relatives that people had at this time. The other picture is Sadang-do (picture of an ancestral shrine) from the Vernacular Explanation of Family Rituals, compiled by Shin Sik in the early 17th century. Sadang is a building where rituals are held, and the picture shows a clear mark for rites offered to the great-great grandfather, the ancestor 4 generations ago.



This is the translation of Chapter 3, Siblings, from Gyeongminpyeon. It consists of three things. It says first, brothers and sisters are born of the same parents, so they should not quarrel over small interests. The older ones should love their younger siblings and the younger ones should respect their older siblings, so that they don't have bad feelings for one another.

Second, property disputes over slaves and land are not profitable in the long run. And third, if brothers and sisters are at odds, they will be ostracized by village people and punished by law by the government. They are blood relatives who have different bodies but have the same spirit, so they have to cherish and respect one another. But there are siblings who don't, and this chapter is about them.

Here, Kim Jeong-guk mentions property dispute as the biggest factor causing discord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Joseon had a law on the gift and inheritance of parents' property, but disputes always occurred. That was the reality. And he talks about slaves and land in disputes among siblings because these were the two key elements that made up inherited property in Joseon.

Considering the practical power of property, you would say that Gyeongminpyeon's idea to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s surrounding it with love and respect for close family members is an extreme idealism. But on second thought, that idealism might also exert the power to sway reality.

These are the types of viola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unishment in the Siblings chapter. Property disputes, abusive language, beatings, and lawsuits are mentioned. As mentioned earlier, this reflects that the core of the conflict among siblings is a property dispute. Among siblings, if someone takes the property away with a false document or has it all, he will be punished with 100 flogs and slave labor, and if they don't live peacefully, they will be penalized with 80 flogs.



Punishment rules for conflicts and fights among brothers and sisters generally put more focus on problems caused by younger siblings and their punishment than those by older ones. The book suggests regulations related to all the siblings as it says, "Among brothers, if someone takes the property away or has it all, he will be punished with 100 flogs and slave labor, and if they don't live peacefully, they will be punished with 80 flogs," but most of what it describes are faults that younger siblings commit to their older brothers and sisters.

The fact that it has more of the younger siblings' faults and their punishment i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norms that "There is an order between the older and the younger," that is, 'elders first.' A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ierarchy worked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Now, this is the fourth chapter, Relatives. Let me check the contents. It says that although the degree of intimacy and distance are different between me and my uncle, and between me and my cousins or third cousins, we are all descendants of one person, so we should respect, care for, and not fight with one another. The composition of Gyeongminpyeon takes the form of expanding from blood relationship to non-blood relationship. As one of many relationships of blood ties, Relatives chapter is located on the outermost part. The content is made up of those 'relatives,' from 'my' uncle to third cousins. The uncle to third cousins mentioned here are those only on the father's side, and those on the mother's side are excluded. The third cousins have the same great-great grandparents, the ancestor 4 generations before. The range of relatives dealt in Gyeongminpyeon is up to the so-called 'Donggojo Palchon,' or third cousins who share the great-great grandparents.

Kim Jeong-guk compared this relationship to having the 'same root' or the 'same source.' In other words, "if you compare it to a tree, it has the same roots, different branches, and if you compare it to water, it has the same source and different streams."

The consciousness to value the same root or the same source is a very important basis for strengthening the solidarity of the family made up of blood ties. If you compare this to the major cultural phenomena that appeared during this period, you can see that it is in line with the thought of Joseon's nobility when they made genealogy.



Since the end of the 15th century, in Joseon, genealogy compilation, which organized various descendants into a single lineage, began, starting with several family clans. Some of the important genealogies made at this time were the Andong Gwon Clan Genealogy of Chenghua Era and the Munhwa Yu Clan Genealogy of Jiajing Era, and those who made the genealogy found the major meaning of their work in identifying the same root, the same source.

The preface to the genealogy of the Changnyeong Seong clan, written by Seong Hyeon (1439-1504), is another good example of such an idea. Seong Hyeon says, "at first, there is one body, but there come brothers with one father, cousins with one grandfather, and second cousins with one great-grandfather. If they share one great-great-grandfather, they are called a clan. From here, they become farther and farther away, so even if there is a funeral, they do not wear mourning clothes and eventually become like others. However, considering the beginning, all of them came from one person, which means that the tree has one root, but ten thousand branches, and ten thousand branches share one r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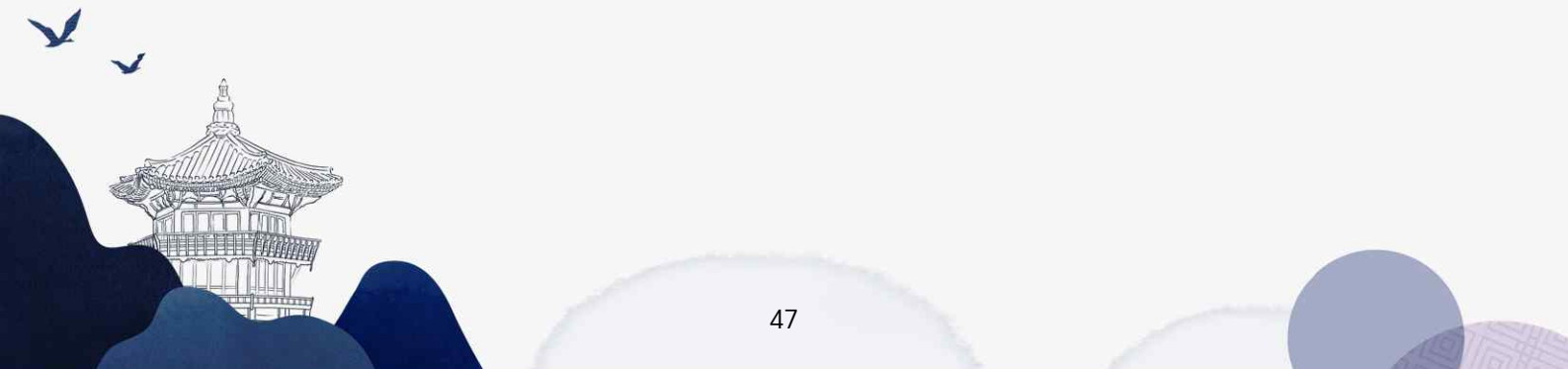
The idea of Gyeongminpyeon, which understands Donggojo Palchon as a concept of a family relative, is deeply related to the case of Zhu Xi's Family Rituals, which insists on the practice of the four-generation rule. In the Family Rituals, the range of ancestral rites was set up to 4 generations from me, my great-great grandparents. It's the so-called 'four-generation rule.' If a rite is offered to great-great grandparents, this ritual covers the descendants down to the fourth generation, to my third cousins.

Then, in Joseon in the 16th century, was it actually common for rituals to be held covering four generations up? Zhu Xi's Family Rituals was already distributed in the 15th century, and some people performed ancestral rites according to the book, but legally, ancestral rites should cover up to three generations. The ritual section of Gyeonggukdaejeon says, "three generations' rituals should be held by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of 6th grade and above, two generations' by 7th grade and below, and only parents' by seoin."



You can see that Gyeonggukdaejeon set different regulations for bureaucrats and seoin, non-bureaucrats. It prescribes guidelines that ancestral rites should be held for up to three generations, except for seoin, who should hold rites only for their parents. In other words, it legally stipulates the distinction according to class or status. We can say that the emphasis on 'Donggojo Palchon' in Gyeongminpyeon came from the awareness to create a new kinship order beyond the scope of customs that had been firmly set in reality. It can also be seen as an opinion that leads to a new culture and customs.

In the next class, we will look at the life in a village and crimes in it, which gives a special feature to Gyeongminpyeon.





4-4

Life in a Village

In the last class, we looked at the Siblings and Relatives chapters of Gyeongminpyeon. In this class, we will look at the life in a village and crimes in it, which gives a special feature to Gyeongminpyeon.

The crime that is unique in Gyeongminpyeon is related to village life, as I briefly mentioned in the first lecture. It includes the chapters of Neighbors, Diligence, and Saving. The criminal acts covered in these chapters ar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crimes generally understood. And the punishment regulations are not related to the Great Ming code, and they strongly reflect the situation of Joseon.

The interest in these chapters is related to the circumstances for which Kim Jeong-guk and Gimyo Sarim paid attention to the existence and role of local people in the 16th century. They hoped that local communities would become economically and socially stable, and tried to come up with ideas and ways to realize it. It is easy to understand the chapters of Neighbors, Diligence, and Saving, in that context.

This is the sixth chapter, Neighbors. It talks about three points.

My neighbor lives in the same area with me. We live together helping each other out of nothing, so our loyalty is like that of relatives.

Do not attack or hurt the weak; do not humiliate the old with higher status;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and try to live in harmony.

If you're at odds with your neighbors and don't help them in need, and don't help them even if they're dying, they will become your enemies.

And eventually, it will cause immeasurable disaster.

It urges us to live in peace with neighbors and help each other if there are difficulties while emphasizing that the order of status and age should be strictly observed. It also takes issue with the strong attacking the weak.



The idea of Gyeongminpyeon, which advocates a society where people help each other when there are difficulties, is in line with the idea of Gimyo Sarim, who actively led the implementation of the hyangyak (Community Compact),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They tried to implement Zhu Xi's Revised Version of the Lu Family Community Compact throughout Joseon, which has four clauses of encouraging one another to do good, preventing one another from doing wrong, interacting with one another with courtesy, and helping one another in hardship.

Chapter 6, which recommends helping one another in difficulties and hardship in the neighborhood, overlaps with the spirit of this hyangyak. Here, the orientation or ideal of the hyangyak is contained in Gyeongminpyeon.

This is the punishment regulations in the chapter of Neighbors. Let me read the text and the translation. The sentence is simple, but the facts contained in these regulations are extremely complex and comprehensive.

호강지인(豪強之人)이 침손어민(侵損於民)하면 전가입거(全家入居)하고, 비천지인(卑賤之人)이 능범존속(凌犯尊屬)하면 역개유죄(亦皆有罪)하니라.

If hogang (a powerful) man attacks and harms people, his entire family will be relocated. If those of lower status attack and humiliate those of higher status, they will also be punished.

Two types of crimes breaking the order of the neighborhood are mentioned in this chapter: damage to the commoners by the powerful and acts that harm the order of status among the village members. The provision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werful and the weak focuses on controlling the strong, and the provision related to status takes issue with resistance and humiliation against those in higher status by those in lower status.

I would like to point out two things in this regulation. 'Hogang' was a man of power who had a strong presence in local communities, also known as toho. They were the ones who undermined the state's legal order and public authority and violated the weak 'small people,' and thus stood on the brink of conflict with state power.



Therefore, in order to form normal power and maintain order, it was essential for the state to control the local hogang and weaken them. It is related to this situation that Gyeongminpyeon mentioned the provision regulating the powerful.

The punishment of relocation of the entire family for hogang's crime is unique to Joseon. It is also called jeon-gasabyeon (relocation of the whole family to the frontier), which is stipulated in Gyeonggukdaejeon. It means moving the family of the criminal who was living in the three southern regions to the border area such as Pyeongan-do and Hamgyeong-do. The system started to increase the population in remote northern frontiers, where selected farmers were forced to move or sinners were sent. Not all of the people who were relocated were sinners, but many of them were. The law in Gyeongminpyeon, which states that if the powerful commit a crime, his whole family will be relocated, is related to this tradition.

Next, this is the eighth chapter, Diligence.

In general, the hungry and begging are all those who do not work hard on farming. Work hard to cultivate even a piece of weed-grown fallow. Even if others wander hungry, I am full, warm, and at peace, and I have no worries until the end of the year.

It's relatively simple. If you farm diligently, you can avoid the crisis of starving and begging, so you should try to cultivate even a piece of weed-grown fallow. The way that Gyeongminpyeon encourages farming by contrasting the crisis of wandering and begging with a stable life has the effect of clearly revealing the need for farming. This is because it makes clear that farming itself is not for anyone else, but for one's own survival.





The steady cultivation of the local people who did not leave the fallow was necessary for each of them, but it was also a very important issue for local communities and the state. It is because when agriculture, the infrastructure, collapses, problems arise in all aspects. Diligent farming was a very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the state from collapsing and maintaining a strong structure. We can say that Gyeongminpyeon is even aiming at such effects.

This is the punishment rules in Chapter 8. It contains three things. They are the imposition of taxes on the weed-grown fallow, diligent management of non-agricultural industries,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spotted as bandits if not working.

The only actual punishment that 'taxes will be collected for the fallow,' is mentioned in the first sentence. It's not a personal arrest, so it's hard to say it's a punishment, but it's compulsory in that it imposes economic burden. The second clause is rather an advice.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in addition to farming, they should not neglect sericulture or commercial activities. This expresses the idea that there should be no one in the province who is not-working.

The third is a warning against an idle life. Idle people sometimes suffered false accusations of being thieves, but they always had the possibility of being swept away by a band of thieves, actually. From these three points, you can feel the strong hope of the local power that people would settle down and concentrate on their own livelihood.

The ninth chapter is Saving, which means piling up grain. It is rather long. And it contains two things. First, it requests not to waste grain. It says after the autumn harvest, people would be misled by plenty of grain and use it recklessly, unable to avoid hunger and poverty in the spring and summer of the following year, and as a result, they could not farm prop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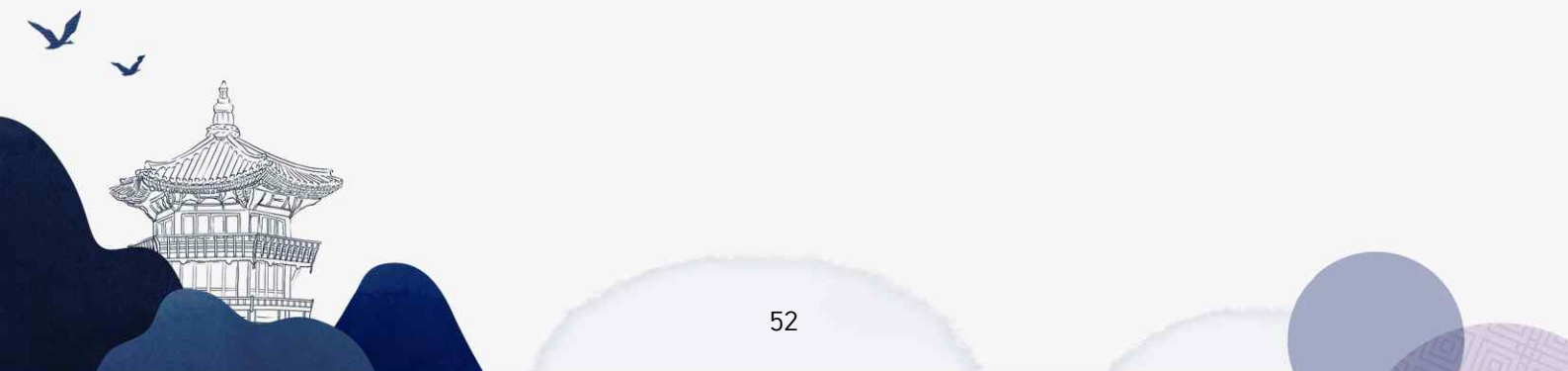
Second, it explains the effects of saving and wasting, comparing the examples of Andong and the northern province, and tells us to work hard on saving grain. Kim Jeong-guk describes Andong as an example of thrift and the northern province as a symbol of waste. Chapter 8, which says that you can endure any natural disaster if you pile up grain without wasting it, seems passive on the surface, but in fact, it actively suggests way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live a steady and healthy life.

Like Chapter 6, this chapter aims to encourage local people to keep their daily economy normal, rather than regulating and preventing crime. Therefore, regarding legal punishment, it ends simply by saying, "If you waste it, holding a drinking party and all, it is also a crime."

Gyeongminpyeon, which was made to teach people to help govern local regions, has realistic content. Some of the themes of the book came from a Chinese classic, and it was based on the legal provisions of the Great Ming Code, but the actual content did not deviate from the reality of Joseon.

The short passage describing Andong people's habit of saving and squandering of the people in the northern province vividly shows how Joseon people thought of the land they were living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The exact location of the northern province mentioned here is not clear, but I think it is safe to think of it as Pyeongan-do area, where local products were abundant.

Was the description of Gyeongminpyeon, which shows extreme contrast of the lives of the two regions, considering Andong people as hard-working and reasonable, and those of the northern province as wasteful, reflecting Kim Jeong-guk's personal idea? Or was it a common perception that people shared widely at the time? I wonder.





It is not easy to find a reference to the customs of the northern province during this period, but the idea that Andong people were frugal seems to have been widespread in Joseon at that time.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says about Andong and the customs of this area, "The land is barren, and the customs show that the people admire diligence and frugality, and strive for agriculture and sericulture." Donggukyeojiseungram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lso says that Andong people "pursue diligence and frugality and strive for agriculture and sericulture,"and they "work hard on farming and don't waste."

In 1486, the 17th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Yi Geukdon, who was a relief envoy dispatched to Jeolla-do, said the same thing. In contrast to Joseon's wasteful customs, he had a high opinion of them, saying, "The people of Andong are frugal and have a custom of respecting thrift, so they calculate the harvest of the year in advance to save seeds and food for the following year, and use the rest for living this year, so even if there is a flood or a drought, there will be no worries about starving and abandoning each other." Next session, we will look at Larceny and Homicide in Gyeongminpyeon.





4-5 Larceny and Homicide

Last session, we looked at the life in a village and crimes in it, which gives a special feature to Gyeongminpyeon. In this session, we will explore the Larceny and Homicide chapters of Gyeongminpyeon.

Larceny and homicide are the biggest crimes mentioned in Gyeongminpyeon. They are crimes that can damage the stability of local communities and further undermine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The Great Ming Code classifies large-scale rebellious acts such as rebellion and treason as larceny, but Gyeongminpyeon does not cover them. This also tells you Gyeongminpyeon's intention that emphasizes deviations easily found in the daily lives of local residents.

Murder is a big event where a murderer and a victim are intertwined. No one should commit murder, but it was also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murderer and release the victim's resentment. In this regard, the Joseon Dynasty tried to establish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thoroughly investigating murder cases and leaving no doubt about them. This is well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since King Sejong's reign, Joseon tried to handle murder cases by using Wuyuanlu (Records of Avoiding Injustice). The picture you're looking at is the Vernacular Edition of Wuyuanlu published in King Jeongjo's reign.

This is the twelfth chapter, Larceny. The content is simple. It tells not to steal or forcibly take things. You had better beg. This is because even if you live well temporarily by stealing, you can't avoid being discovered and ruining yourself and your family.

The view of Gyeongminpyeon, which finds the reason for being a thief in cold and hunger, that is, poverty, is correct. There's nothing to eat and wear, so they steal and rob other people's things. That's why the old saying goes, "If you starve for three days, no one can't resist climbing over a wall." No one robbed because of their nature or boredom.





Is there any way for a good man to avoid becoming a thief? When the hungry and the starving are gone, those who steal and take away things will disappear. Then, the way to prevent people from becoming thieves is to prevent people from starving.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llow members of society to live in abundance. This is related to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It's a social and political task. However, Gyeongminpyeon does not approach the problem that way. It's a book for local people, so he couldn't talk about policy.

The book recommends that if you are driven into a situation where you would become a thief, you should rather become a beggar and beg. In today's view, this is really lame and not an alternative to be suggested by a local official, but Kim Jeong-guk seems to have thought that this was the most realistic solution in the 16th century. It is also true that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Joseon people did not break away from this framework when they paid attention to the value of Gyeongminpyeon.

There were many beggars in Joseon. Hendrick Hamel, who drifted to Joseon in the 17th century and lived for more than ten years, is said to have wandered throughout the winter season to beg for food in 1662 when there was a great famine. At this time, Hamel had an experience of 'rather being a beggar and beg.'

Winter was coming, but because of the famine, there were no extra clothes.... We petitioned the Commander to take turns with half of us working for three days, while the other half going around looking for food. This turned out to work well after all. So we went out for about 15 or 30 days, begging, and distributed what we gained evenly. This continued until the current Commander was transferred.

There is a saying that even the King cannot save the poor. It is not clear when this proverb was made, but it expresses well that it's not easy to relieve poverty. Gyeongminpyeon's suggestion that people who are driven by cold and hunger to steal had better beg came from the intention of protecting their lives, but ironically, it shows Joseon's poor economic situation during this period.



This is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Larceny. They are divided into punishment for theft and for robbery. The punishment for theft is again divided into two forms. If someone steals, he will be sentenced to flogging, and if he steals a lot, he will be lowered to become no (male slave) on a remote islands. It seems that the reason why the term 'no,' which means a male slave, is used instead of 'nobi,' slave, is that they had the notion that 'a thief is a man.' Most of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theft were men.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Gyeongminpyeon are a mixed abbreviated version of the contents of the Great Ming Code and Gyeonggukdaejeon. The Larceny section of the Great Ming Code stipulates that petty thieves and big thieves with a large scale of stolen goods are subject to differential punishment, but according to Gyeonggukdaejeon, those who belong to the big thieves of the Great Ming Code are sent to a remote island and made a 'no' forever. We can see that while applying the details of the Code, it transformed the conten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Joseon. Gyeongminpyeon also mentioned that thieves are punished by lettering. Lettering is a punishment of engraving the crime one committed with ink on his body, and it was a 'scarlet letter' in that once engraved, it could not be erased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had to be shown to others. According to the Great Ming Code, all the first offenders of theft had the word 'theft' engraved on their right arm, second offenders had it again on their left arm, and third offenders were hanged.

From this, we can infer that the 'lettering' mentioned in Gyeongminpyeon means engraving 'theft' to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theft. According to Gyeonggukdaejeon, when lettering was done, the lettered body part was signed and sealed, and the culprit was locked up for three days, and then released. This was to protect the letters because it was common to take out ink in the engraved letters and erase traces if they were released immediately after lettering.

The size of the letter was set according to the Great Ming Code. The length of one side per letter was approximately 5cm, and the width of the stroke was 0.5cm. It was a size that people could see clearly when the culprit rolled up his sleeves.



Lettering was abolished in 1740, the 16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and it was recorded in Sokdaejeon (Supplement to the National Code). The abolition of lettering was included in a series of measures taken by King Yeongjo to abolish harsh punishment. He abolished the sentence of knee pressing and branding, which were used to torture suspects, in 1724, the year of his accession and in 1733, the 9th year of his reign, respectively. And in 1744, the 20th year of his reign, he abolished the sentence of relocating the entire family. In the case of robbery, Gyeongminpyeon prescribes that 'everyone, whether he is a leader or a pawn, will be decapitated.' In the Great Ming Code, punishment regulations were set separately for cases with or without property gain, and if property was obtained, both the main culprit and the accessories were all to be punished by decapitation. The punishment regulation of Gyeongminpyeon follows this.

In Joseon, the punishment for theft and robbery was strict. Gyeongminpyeon, while facing the fact that theft and robbery come from hunger and poverty, can't suggest anything more than begging for an alternative and says that theft and robbery will eventually lead to serious disaster.

It makes us think about how hard for many people in Joseon to live on this land,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te, robbery and theft were also a serious disruption to public order. Kim Jeong-guk told us to beg rather than rob or steal probably because he felt sorry for the situation where Joseon's people had to suffer harsh punishment without any special measures to avoid hunger, and hoped for safety and order in his jurisdiction.

The two minds were difficult to reconcile, but anyway, it was an urgent challenge for him to prevent people from robbing and stealing. Unlike other crimes, the punishment for this crime was that the body of the person who committed theft and robbery was made to be a lifelong prison through engraving 'theft' or 'robbery' on it. Literally, it was a punishment to inform the world that once a thief is always a thief.

Now, this is the 13th chapter, Homicide. Let me read the text with gugyeol and the translation.





인명(人命)이 지중(至重)이라, 피아무간(彼我無間)이어늘,
 포악지인(暴惡之人)이 흑인탐재(或因貪財)하며 흑인수원(或因讎怨)하야
 모야무인지중(暮夜無人之中)에 잠행살해(潛行殺害)하야 자이위득계(自以爲得計)하나니
 상천임하공소(上天臨下孔昭)하시고 귀신재방(鬼神在倣)이라
 조만발로(早晚發露)하야 필몽잔얼(必蒙殘孽)하나니
 장살무죄지인(戕殺無罪之人)하고 보전평생자(保全平生者)이 자고미유(自古未有)하니라

A man's life is extremely important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you and me in this. If a wicked man covets wealth or tries to revenge, and murders in the middle of the night without anyone knowing, and he's relieved that he'll be okay, but the sky is looking down clearly from above, and the spirits are next to him, so sooner or later, the facts will be revealed and disaster will inevitably occur to him. There has never been a person who has killed an innocent man and kept a comfortable life all his life.

There are various reasons why people kill other people, but this chapter only talks about murder caused by coveting wealth and to pay off a grudge. These murders are different from the one that happens accidentally while arguing with each other with ang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rder covered here is that it is planned, intentional, and secretly committed to avoid the eyes of others. The nature of this crime is extremely serious.

The reason why you shouldn't kill is simply stated. As important as my life is, other people's lives are also precious, so the premise is that I should not take them away. A man's life is so precious that if it was taken away, it can't be compensated with anything else. So for a long time, if someone killed someone else, the killer had to pay for it with his own life. This is called sangmyeong (killing the killer).

What happens when I kill someone? Will I be able to get away with it without getting caught? Gyeongminpyeon says that murder will be revealed because of the existence of someone secretly looking, and this someone is sangcheon, the sky, and the spirits. All of these are not to be seen by the eyes, but Gyeongminpyeon sees them as beings with lively senses beyond time and space. They reveal murder, so you should never kill another person. They are the real reason why you shouldn't murder.



The attitude of Gyeongminpyeon, which is drawn on the sky and spirits, clearly shows how people face events that cannot be handled by human wisdom. The sky and spirits were terrifyingly powerful in that they were always close and had transcendent power.

The reason why you shouldn't commit a crime, and the reason why you think so, is not because of any logic or explanation, but because you are vividly conscious of their existence and think they are looking at you with the clear eyes. Is there anything else that feels more real than the sky and spirits looking at you? It seems to be threatening or fictional, but they were alive to Joseon people during this period. The two things mentioned in Gyeongminpyeon to warn against murder are contradictory. If the logic that other people's lives are as precious as my life is based on the general theory of value, the story that the transcendent existence like the sky and spirits are watching is the use of the pre-logic world.

Is it possible for these two dimension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o coexist? Gyeongminpyeon is talking about them simultaneously without any hesitation. This shows that the two dimensions did not collide with each other in the mind of Gyeongminpyeon's author. Recognizing two different worlds at the same time would have been common imagery to his contemporaries. The sky and the spirits were beings who always exist next to them with eyes and ears, so they were scary beings who gave them both disaster and blessing by looking at both their good and bad deeds.

In the chapter of Homicide, the punishment regulations mentions murder in several types. They are plotted murder, curse murder, murder by poison, murder by venomous insects or snakes, and murder by luring into dangerous places. These murders are intentionally carried out and are different from unpremeditated or injury killing. The nature of these murders is extremely bad. In that sense, the level of punishment is also extreme. You can see that the murderer was beheaded or hanged in any case.



The various forms of murder mentioned in Gyeongminpye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official judgment of state power based on facts. The state had to make a rigorous investigation into the facts and deal with the series of events relevant to a murder case based on them. It was the provincial leader, Suryeong, who was responsible for this on the forefront of the province. He handled all civil and criminal legal cases. When a murder occurred, the leader could not relax for a moment until the case was solved.

Once the case was filed, the leader preserved the crime scene to identify the suspect, while examining the body and filling out a death report. The postmortem examination was also called geomheom, and it was done through examination of the body in its original form. After examining all the facts that may be of reference, a death report was prepared in geomsijangsik (body examination form).

The procedures related to the postmortem examination followed Shinju-muwonrok (Newly Annotated Wuyuanlu) published in King Sejong's reign. This book is a revised edition of Wuyuanlu created by Wang Yu, of the Yuan Dynasty in China, and it was very useful in handling murder cases because it clearly organizes the laws and points to note from the occurrence of a murder case to the solution of it.

Later,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 and Jeongjo, it was revised and expanded as Jeungsu-muwonrok (Revised and Enlarged Wuyuanlu), and this edition was then explained in Hangeul and published under the title of the Vernacular Edition of Jeungsu-muwonrok.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ost-mortem examination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death was caused by suicide, or murder, and if it was murder, you have to determine again whether the body was beaten, stabbed, strangled, or poisoned to death.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witnesses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body were also matters to be checked and fi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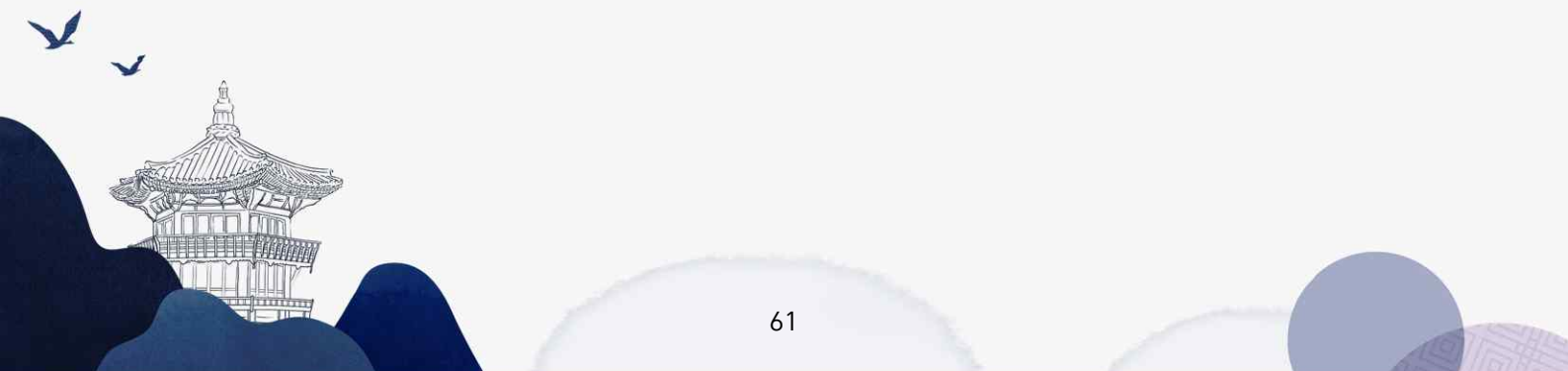


How long it had been since the person died was also a matter to be discovered. The various types of murder mentioned in Gyeongminpyeon could only be confirmed after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t was the wisdom of books such as Shinju-muwonrok that was useful in doing this.

So, that's it for reading Gyeongminpyeon. Gyeongminpyeon was made in the hope that local residents would live away from the crime and deviance. To this end, Kim Jeong-guk, the compiler of Gyeongminpyeon, thought it was important for local residents to learn and understand, first, why they should not commit crimes. Having the legal knowledge was secondary here.

This idea of putting edification at the root and legal punishment at the end was in line with the Joseon politicians' intention to run the state based on Confucian political theory. Joseon's politicians thought that this was the power to keep the country stable and long-lasting. This is why Gyeongminpyeon, compiled in the early 16th century, had been used unti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Joseon advocated governance based on Confucianism, and the people who lived in it became Confucian over a long period of time. Gyeongminpyeon tells us some of those historical process today. This brings us to the end of the lecture on Gyeongminpyeon.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4周

解读《警民编》

4-1

不教导而处以刑罚则视为“罔民”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警民编》课程主讲的郑豪熏。这节课是我们的第四节课，以“解读《警民编》”为主题。这次主题是上节课“警民编的理解”的后续篇。

编者金正国为了引导朝鲜的地方居民不犯罪，制作了这本书。警民编之后经过了多次增补的变化，直至朝鲜末期被使用。

这本书具有许多特性。虽然只是一本书，但根据时期不同，形态、构成和内容也不同，这点可以说是这本书的第一个特征。

为了让教育水平并不太高的地方居民们便于学习和理解而构成内容，这点是另一个特征。使用的逻辑和用语都没有那么难，虽然用汉文撰写正文，但是也附上了韩文译文。

希望通过解读警民编，能够接触到多样的朝鲜历史和文化。这本书会告诉我们朝鲜的权势在统治地方居民，维护秩序时运用了怎样的思想和方式。进而也会展示权势向百姓传达自己想说的话时使用的文字是怎样的。

课程以17世纪中叶出现的李厚源刊本作为底本。可以得知这是为了阅读方便而干净印刷的木刻本。

在历史上不管是哪个国家，都会规定罪行，并据此来处罚犯罪人。朝鲜建国后，也制定了处理犯罪和犯罪人的原则，以此为基础管理国家。经国大典、大明律等法典中也包含了朝鲜规定的罪行和对此的处罚方式等相关内容。

警民编是关于百姓的罪行和刑罚的书。金正国分出了朝鲜13个类型的罪行，并据此撰写了13章。每一章讲述一种罪行。但是金正国并没有就那样将朝鲜通用的许多罪行和对其的处罚涵盖进去，而是用自己的方式重新编排。如果知道了金正国编排警民编的方式和其理由，我认为也就理解了警民编长期在朝鲜使用的原因。



第1章的题目中“罔民”是指设下法律的圈套，就等着百姓们上钩。在接下来的课程内容中，可以看到相关的具体内容。

警民编的13个篇章中涉及的犯罪，其处罚方式都与经国大典、大明律有关联。但是仔细观察警民编13章的特质、编排方式等，有很多有趣的地方。

将13个篇章按主题分开来看，分为父母、夫妻、兄弟姐妹、族亲的4项家族血缘关系犯罪，奴婢1项，邻里1项的在乡村的犯罪。还有，盗贼、盗窃、斗殴、犯奸、杀人4项的乡村人士间的一般犯罪、勤业、储积2项的农事及储蓄相关的犯罪，嗣位1项的官公署或者公权相关的犯罪。

这5个类型的罪行是重新分为和大明律中名字相同的项目，即用B来标记的项目，和没有这样做的项目，即用A、C来标记的项目。针对斗殴、犯奸、嗣位、盗贼、杀人等在大明律中确定的犯罪的主题，提出了律文。警民编也引用了这种方式。剩下的项目是在大明律中没有确定的主题。虽然使用了大明律，但警民编的项目名，有些在大明律中有，有些是找不到的。

要找警民编的主要特性的话，就要关注大明律中无名的项目A、C。用A来标记的犯罪项目是以主体即父母、子女相似的行为主体为中心进行了分类。对这些能在内部发生的杀人、辱骂、殴打等的处罚规定在项目上并不突出。但是这些犯罪在项目内有所记述，其处罚规定都遵循了大明律。

用C所标记的犯罪是把它作为犯罪来看，冤屈较多。在邻里里，虽然强调了乡村内成员间要维护好身份秩序，互相帮助，但没有特别的处罚规定，说是有也只是列举了朝鲜既定的刑律。勤业是劝说要勤奋务农，储积是劝说秋收后不要浪费粮食。处罚规定也没有单独提出来。

这样来看，可以知道金正国只是告诉地方居民们日常会出现的犯罪，可以根据大明律规定进行处罚的犯罪，是以避免犯罪为目的，但不是唯一目的而编撰的警民编。里面有他自己想要强调的内容。

金正国重视从父母连接到家门的血缘的存在，强调按照人伦生活，在生活中维护乡村内的身份秩序，互相帮助，在生活中专注务农，不浪费，认为这些都是必要的。这一点是金正国的个人理想，也与己卯士林们很重视，想要作为政策实行的事实有关。



警民编是在具有特别的意识和目的背景下编撰的。金正国编纂警民编的思想在序言里充分体现。读这篇文章，能很好地看到金正国的思维、警民编的个性。金正国在文中说明了三点。

第一点，强调了如果不告诉百姓们犯罪与法律的意义就整治他们所犯下的罪，这等于是把百姓逼入犯罪的深渊。

“制定刑罚和法都是出于古君爱民之仁心，不先用道德来引导他们，而是用法来讨论拘禁与否，这岂不是接近于渔猎百姓吗？愚民如虫，不知人伦之重，如何知法之深？笨得像瞎子聋子，蠢得只扑在衣食上的百姓，没意识到自己违法而犯了罪的话，负责官吏察法将其用捕绳捆起来，如同撒网捉麻雀，设下机槛（机槛—抓捕猛兽的陷阱）抓猛兽一般，如何能让百姓做善事远离恶事呢？”

金正国肯定刑罚和法的存在。这个时期刑罚在某些方面很暴力严酷。但是金正国承认制定刑罚都是出于古君爱民之仁心。

即便如此，如果不先用道德来引导百姓们，只用刑罚来管束的话，他将这称作“渔猎百姓的行为”。认识到不告诉他们制定法律处罚的理由，在这种状态下定罪处罚的话，这是如同撒网捉麻雀，设陷阱捕猛兽的行为。

罔民的思维本来可以在孟子这里找到。孟子说，在不给百姓们提供好好生活的条件的情况下，就严惩他们因温饱问题犯的罪的话，就同撒网捕鸟的行为一样。金正国引用了这个，强调了连百姓们知不知道犯罪问题都不清楚的情况下，不可以定罪。

第二个，强调了希望地方居民们在阅读警民编时，先懂得根本与事理，法律的处罚规定，然后近善远恶。

“制书时，一定要追本溯源，探求真理，是因为希望百姓们用心感受，有所发展。引用法律来参证，是因为希望百姓们怀有畏惧之心，懂得避开作恶。说简单话，写俗句子，是因为想让百姓们不学也可以轻松的理解。”

如果懂了法律的可怕之处，就会有一定不能犯罪的想法，但比起这个，金正国认为更重要的是意识到犯罪后会受到严厉惩罚的根本原因。金正国为了实现这个目的，用简单的内容、普通的单词和句子来撰写，想让地方居民们不具备难懂的知识也能够读这本书。



第三个，强调了牧民官，即守令们，用这本书改变百姓们的风俗是最重要的事。交代了实际使用这本书的主人公不是别人，就是郡县的守令，因此他们应该主动运用这本书。内容如下。

在引导百姓改变风俗的方式上，如果不尽心尽力地做，那绝不是编者所期望的。我们这些负责牧民的人，不也应该时刻放在心上吗？

朝鲜的地方制度是将全国分为八道，各道又设置了州、府、郡、县。主管道的官员是观察使，又称监事。这之下州、府、郡、县、的负责人通常叫做守令。观察使是管理监督守令的存在，郡县的政治实际上是守令主管。因此守令也叫做牧民官。

虽然曾任黄海道监事的金正国编纂发行了警民编，但是实际上向黄海道居民们普及且使他们熟知此书的责任是守令担当的。金正国说出让牧民的人们应该放在心上，就是在这种情况下出现的。

警民编是为了牧民官即郡县的守令管理地方，同时教化地方居民所制的书。可以说是为了牧民官们履行职务，必须的道具。但是，警民编又具有很多，直接以守令为对象所写的牧民书所不具备的特质。在牧民书中整理了身为牧民官必须具备的决心，治理郡县必须留意的事项等，适合牧民官们作为指南使用。

15-16世纪，朝鲜的地方官员们参考的牧民书中，最具代表性的事牧民心鉴。这本书是明朝一位叫做朱逢吉的官员撰写的，在朝鲜太宗时期引入，开始使用。画面上是朝鲜前期发行的刊本。

下节课我们将探讨《警民编》的父母与夫妇。





4-2 父母与夫妇

在上节课，我们探讨了“不教导而处以刑罚为‘罔民’”的主题。这节课我们将探讨《警民编》中关于父母与夫妇的内容。

正如前面所提到的，金正国认为警民编中父母、夫妇、兄弟姐妹、亲族的血缘关系特别重要。虽然在儒教传统中，父母、家人等的血缘关系一直都被重视，但是从朝鲜的情况来看，这从16世纪初期才开始被特别强调。这与这个时期没有国家权力的支撑也能在社会中发挥力量，想要创建家庭和家族的士族们的意志有关。

在这个时期，《小学》、《正俗谚解》、《朱子家礼》等文献被关注和广泛运用，是有这样的缘由。警民编中展现出的这种特性也反映了类似的事实。

这是父母章的开头部分。附上口诀，来读一下原文和翻译。

父如天，母如地，够劳生我，辛勤乳哺，艰难养育，父母恩德，昊天罔极，祖父母，生我父母，与父母无异。

父亲如同天空，母亲如同大地。辛苦地生下我，辛勤地喂我喝奶，吃力地把我拉扯大，父母的恩德像天空一样无穷无尽。祖父母生下了我的父母，所以他们对我而言，与父母无异。

“父亲如同天空，母亲如同大地。辛苦地生下我，辛勤地喂我喝奶，吃力地把我拉扯大，父母的恩德像天空一样无穷无尽。”这篇叙事根植于《诗经》。这篇载于经典，名为《蓼莪》的作品中，歌颂了父母的恩惠如下。

蓼蓼者莪，匪莪伊蒿。哀哀父母，生我劬劳。

引用了诗经的诗，赞颂了父母恩如天高，强调了要尽孝的《警民编》作者的心思，这是在撰写这本书的16世纪初期的朝鲜社会，广为流传的观念之一。这个时期经常可以看到含有与此类似的表达的书或者时调的作品出现，被阅读和传颂。



首先我们看看在朝鲜初期广为人知的《明心宝鉴》。这本书的《孝行篇》中，引用了上面的诗句。阅读《明心宝鉴》的读者，也会把深情歌颂父母恩惠的《孝行篇》深深地铭刻于心。

《诗经》有云：“父兮生我，母兮鞠我。哀哀父母，生我劬劳。欲报之德。昊天罔极！”

16世纪中期作出的《五伦歌》也将这个内容融入到曲调中。五伦歌是以五伦的规范为主题创作的时调或者短歌。为了能大体上简单地背诵熟悉五伦，由地方官员或两班贵族们创作普及。

介绍这个时期的五伦歌中，周世鹏的作品。这首歌是1549年明宗4年，周世鹏在职黄海道观察使时创作，向黄海道地区居民们普及，涉及父子有亲的内容与《警民编》第1章表达几乎相同。

父亲生下我，母亲养育我，没有父母就没有这副身躯。想要回报这恩德，却像天空一样无穷无尽啊。

这是父母章中出现的犯罪与处罚规定。附上原文口诀和翻译来读一下。

谋杀祖父母和父母就凌迟处死，殴打则斩，骂詈则绞，不听教令，不勤奉养则皆杖一百，告诉父母则其罪至重。

蓄意谋杀祖父母和父母的话就凌迟处死，打祖父母和父母的话处以斩首的斩刑，责骂祖父母和父母的话，处以吊死的绞刑。不做叫做的事情，不努力奉养的话，杖打100下。向官厅告父母的话，罪大恶极。

对父母和祖父母犯罪的话处罚非常严厉。这是因为这些罪行属于“不孝”。在《大明律》中将最凶恶的十种犯罪定为十罪恶，属于其中的犯罪虽然考虑了轻重，但也实行过最严酷的凌迟处死。《警民编》中提出的上面几个罪行全都属于不孝，因此处以凌迟处死以下的重罚。

这是夫妻章的全文。我们一起读一下原文口诀和译文。

夫妻结缘，百年同居，夫须念妻妻须顺夫，虽有不协，夫益忍怒妻益致顺，家道不败，是故夫妻和乐永保阙家，乖戾不和，终致祸乱



丈夫与妻子结下缘分，一起生活到百年。丈夫应该考虑妻子，妻子应该顺从丈夫。虽然有彼此不合适的地方，丈夫应该尽力忍下对妻子的愤怒，妻子应该尽力顺从丈夫，这样一来家里的秩序才不会崩塌。因此夫妇和睦愉快的话，这个家才能永远保存，互相拧巴不和谐的话，最终会生出灾殃和纷乱。

夫妇是成年男女通过婚姻结下的关系。婚姻是社会承认的两个成年男女结合的仪式。这个结合也是在非常复杂的社会、政治脉络上实现的高度文化行为。古人把没按仪礼和规矩进行的男女结合贬称为野合，正是这个原因。

警民编中强调和乐的夫妇关系是长久维持家庭的道路。而且通过这个方法，提出了丈夫对妻子的关心，以及妻子对丈夫的顺从。让丈夫作为丈夫，妻子作为妻子，怀着各自适合的心意与态度对待对方，对丈夫和妻子的要求是区分开的。

在强调妻子的顺从这一点上，是把丈夫放在重心的方式。为了家庭和睦，要求丈夫和妻子采取不同的态度，这种思考是来自先秦时期以来已经成型的三纲五常儒教伦理意识。

这是丈夫和妻子间的犯罪。我们先看一下照片，来代替读原文。可以看到有两点。首先，提出了妻子的犯罪及其处罚。丈夫的犯罪及其处罚，以蓝线为界，在后半部分出现，红色圆圈下面就属于这部分。再有，与妻子相关的内容很多。从记述的分量来看，对妻子的规定比丈夫多出两倍。

由此可推断在朝鲜，丈夫和妻子的地位如何。这是由于丈夫和妻子关系不是水平的，而是阶级的现象。其具体内容在下个画面里讲。

来看一下译文。这是妻子犯罪及对其的处罚。妻子的犯罪总共提出了4个类型。妻子杀害、殴打、伤害丈夫，对丈夫背叛及改嫁，对丈夫的父母及祖父母、丈夫的亲戚长辈犯罪，与其他男人通奸等。

其中，第一个类型很独特。“妻子蓄意谋杀自己的丈夫的话凌迟处死。打丈夫的话杖100下，使丈夫严重受伤的话吊死，丈夫因伤死掉的话斩首。”可以注意到凌迟处死这个最高等级的处罚。



这是丈夫犯罪及对其的处罚。提出了杀害及伤害妻子，对妻子父母的犯罪行为等两种类型。我们来看下第一个类型。“丈夫打了他的妻子使其死亡的话吊死。让妻子受了很重的伤也都是犯罪。”可以看出与以最高等级的凌迟处死来处罚的妻子杀害其丈夫的比较。正如我们之前所看到的，在《警民编》中，丈夫和妻子犯的罪行以及对他们的惩罚大相径庭。我将这个整理成了表格。妻子犯的罪整理成了四个大类，与此对应，丈夫犯罪只有两个类型。对妻子来说是问题的改嫁与通奸对男人来说不是问题。对于妻子，对公婆、丈夫的族亲犯罪和和处罚都有详细的规定，处罚的等级也很高。

下节课我们将探讨《警民编》的兄弟和族亲。



4-3 兄弟和族亲

上节课中我们探讨了《警民编》的父母和夫妇。这节课我们将探讨《警民编》的兄弟和族亲。

警民编从第1章到第4章，涉及了血缘关系内教化和犯罪的问题。从编排和构成内容的方式来看，以“我”为中心，将“我”之外作为关系扩张。据此，父母最重要，和我一起生活的妻子其次重要，兄弟姐妹就是接下来的等级。

提到了族亲是同个姓氏，同姓直到8寸。有话说“同高祖8寸”，8寸所有都是高祖爷爷的后代。总共四代。这与朱子家礼中祖上祭祀的范围一致。这本书中定下了4代8寸作为百姓们祭祀的最大范围。警民编中直到4代8寸的族亲，理解为血缘，重视这个关系是因为想着要实践朱子家礼的礼制。

画面上的照片是15世纪末编纂的安东权氏族谱。可以窥见这个时期的人们对血族的观念。另一张照片是17世纪初期，申湜编纂的家礼谚解的祠堂图。祠堂是祭祀的建筑，祭祀连4代高祖父都清晰地标示了。

这是《警民编》的第3章兄弟、姐妹的译文。由三种内容构成。第一，兄弟和姐妹是同一父母下出生的骨肉至亲，不能因为小的利害问题打架。要做到哥哥爱弟弟，弟弟敬哥哥，不怀有对彼此不好的想法。

第二，围绕奴婢和土地财产纠纷，从长远来看没有利益，第三，兄弟姊妹不和的话，就在乡里受到排斥，在国内按照法律处罚。是虽异身但同气的血亲，所以应该互爱互敬，但这是考虑到因利害关系而不和的兄弟姊妹的内容。

这时金正国提出了兄弟姊妹间发生不和的最大原因就是财产纷争。在朝鲜虽然制定了对于父母财产的赠予、继承的法制，但还是常有纷争。这就是现实。作为参考，在兄弟、姊妹间的纷争中谈及奴婢和土地，是因为这是朝鲜财产继承构成中的两个核心要素。

想一下财产所具有的的现实力量，围绕这个的纷争与矛盾，用至亲的爱与恭敬来解决的这种想法，可以看出警民编的构想是极致理想主义的。但是换个角度想，这种理想主义也发挥了掌控现实的力量。

这是兄弟、姊妹章的违法行为及其处罚条项。提出了财产纷争、辱骂、殴打、法律诉讼等。虽然前面已经提到了，但讲述了兄弟、姊妹间矛盾的核心是财产纷争。兄弟间，如果有人用虚假文件夺走财产或者全部拿走，杖100下并处以徒役，不和平相处的话处刑杖80下。



对兄弟姐妹间的矛盾和争斗的处罚规定，大体上，是以比年纪大的哥哥或姐姐年纪小的弟弟妹妹们引起的问题和对他们的处罚为主。“在兄弟间，抢走财物或者全部拿走的话，杖100下并受到徒刑，不和平相处的话，受到杖80下的处罚。”虽然也提到了与兄弟姐妹所有人都有关的规定，但大部分都是弟弟妹妹对哥哥姐姐犯的错。

并且，更多地提到了弟弟妹妹们的错误，内容以对他们的处罚为主，这与“年纪大的人和年纪小的人之间有秩序。”的“长幼有序”的规范适用有关。与丈夫和妻子的关系相同，兄弟、姐妹间也有阶级。

第四章是族亲章。我们来看一下内容。提出了和我有3寸，和我从4寸到8寸虽然有亲疏远近的差异，但都是同一个人的子孙，劝诫彼此尊敬，互相照应，不吵架。

《警民编》的构成采取从血缘到非血缘的关系扩张的形式。“族亲章”从血缘的几个关系来看，位于最外围的位置。“至亲”包括了“我”的3寸到8寸，内容与此相关。在这里提出的3寸到8寸仅限以父系为对象，母系则被排除。8寸是同一个4代祖高祖的关系。《警民编》里涉及的族亲范围就是所谓的“同高祖八寸”，直到“同一个高祖的8寸”。

金正国说明这样的关系，用“同根”、“同源”来比喻。即“比喻在树上的话，就是同根异枝，比喻在水里的话，就是同源异流”。

重视“同根”、“同源”的意识，是巩固用血缘来组建的家族团结，非常重要的基础。将这个和这个时期出现的主要文化现象联系起来的话，可以发现这符合朝鲜的两班士大夫们制作族谱时常有的想法。

朝鲜15世纪末以来，将几个后代整理在一个系统里的族谱编纂工作，以几个姓氏为首开始进行。这时制作的重要族谱有《安东权氏成化谱》、《文化柳氏嘉靖谱》等，制作族谱的人们从“同根”、“同源”中寻找制作族谱的主要意义。

从成倪撰写的昌宁成氏族谱的序言这份资料中能充分看出这种思想。成倪说，“最初是一个人的身体，但同一个父亲就成了兄弟。同一个爷爷就成了4寸，同一个曾祖父就成了再从。同一个高祖的话就称作族。从这开始就渐渐疏远，有丧事也不穿丧服，像别人一样。但是如果究其初始，全都是从一个人而来，这就与树虽只有一根，却有千万枝，虽有千万枝，却只有一根是一样的。”



把“同高祖八寸”作为一个族亲概念的《警民编》的思想，与提出实践四代奉祀的《朱子家礼》的礼制有很深的联系。《朱子家礼》中祭祀的范围是从我开始到4代往上的高祖位置。这就是所谓的“4代奉祀”。直到高祖祭祀的话，这个祭祀包括了4代的子孙们，即从我开始直到8寸。

那样的话，16世纪朝鲜的现实中，祭祀通常进行到4代吗？15世纪已经《朱子家礼》已经普及，也有人根据《朱子家礼》来祭祀，但因为从法律上来说最多到3代，所以祭祀进行到曾祖父。《经国大典》以前的“奉祀”条里所说的“文、武官6品以上祭祀3代，7品以下是2代，庶民只祭祀父母。”就是这个。

由此可知经国大典的规定是根据官员和不是官员的庶民来区分，分别制定的。虽然祭祀最多就到3代，但庶民曾经只祭祀父母。可以说根据阶级或身份划分等级，从法律上规定了这一点。

《警民编》里强调的“同高祖八寸”，可以说超越了现实中固定的习惯范围，出现了创造新型亲族关系的意识。也可以看作是引领新文化，新习俗的意见。

下节课我们将探讨《警民编》里具有特殊性质的犯罪，乡村里的生活。



4-4 乡村里的生活

上节课我们探讨了《警民编》的兄弟和亲族。这节课我们将探讨《警民编》具有特殊性质的犯罪，乡村里的生活。

在警民编中具有特殊性质的犯罪在第一节里稍微说了一下，与乡村中的生活有关。邻里章、勤业章、储积章等都属于这个。这些章里涉及的犯罪事实与一般所想的犯罪性质稍有不同。并且处罚规定也与大明律没有关系，而是很大程度上反映了朝鲜的情况。

对这几章的关注，与16世纪金正国和己卯士林关注地方、地方居民们的存在和作用这件事有关系。他们希望地方社会在经济或社会上能够安定，想要制定能够实现这个的理念和方法。邻里章、勤业章、储积章等的内容，如果仔细看这样的脉络，很容易就能理解。

第六章是邻里章。讲了三点。

邻居与我居住在同一个地区，互相帮助，情理上如同亲戚。不可侵扰弱者，不可凌辱身高年长者，要努力做到诚挚对待，尽力和睦相处。邻里关系不和，患难也不救助，人死了也不帮助的话，彼此成了冤家，最终将惹上不可估量的祸端。

虽然期待与邻居和睦相处，有困难的话互相帮助，解决困难，但是强调了要严格遵守身份和长幼秩序。强者侵犯弱者的行为也被视为有问题。

如果有困难的事情会互相帮助的社会，期待这种社会的《警民编》的思想，与16世纪前半期积极主导乡约实行的己卯士林的思想相符合。他们想要在朝鲜全域实行互相鼓励施德善行的德业相劝、互相限制错误行为的过失相规、用礼仪互相交流的礼俗相交、互相帮助苦难的患难相恤，符合这四个条项的《朱子增损吕氏乡约》。

劝说互相救助邻居出现的困难，忧患的第6章，内容与乡约精神重合。这里可以说乡约的志向或理想包含在《警民编》里。

这是邻里章的法律规定。读一下原文的口诀和译文。虽然内容很简单，但这个规定中记载的事实非常复杂全面。



豪强之人，侵损于民，全家入居，卑贱之人，凌犯尊属，亦皆有罪。

豪强之人侵害百姓，使其受害，全家受到入居的处罚。身份低下的人凌辱侵犯身份高贵的人，也全都要受罚。

在邻里章中提到的属于破坏邻居秩序的犯罪事项是，豪强之人，即有势力的人，侵害普通百姓，以及破坏乡村成员们的身份秩序行为等两项内容。与强者和弱者的关系有关的事项侧重于控制强者，但与身份相关的事则将低身份对高身份的抵抗和凌辱看做问题。

在这个规定中我只想指出两点。“豪强”是在地方社会，有强大的力量，作为行使权力的存在，也被叫做土豪。他们在社会上破坏国家法律秩序和公众权威，是侵害弱小“小民”的存在，因此更接近于站在国家权力的矛盾边界上的存在。

因此，在国家的立场上看，为了加强集权和维护秩序，必须要控制地方的豪强们，弱化他们的力量。在警民编中，提出了控制豪强们的规定，这与这样的缘由相关。

对豪强之人出发点入居是朝鲜独特的刑罚。这也叫全家徙边，规定在经国大典里。全家入居是说3南地区居住的人们搬到平安道、咸镜道等边疆地区生活。这个制度开始是为了增加人口稀薄的北方边疆地区的人口，从农民中选人强制搬家或者发派定了罪的人们。全家徙边的人们虽然不全是罪人，但罪人也很多。

“豪强之人犯了错的话，全家入居。”是警民编的法律规定，与这样的传统有关。

第八章是勤业章。

大体上饥寒交迫之人都是不努力务农的人。即使是一块撙荒地，也要努力耕耘。即使别人饥寒交迫，四处流浪，我吃得饱，穿得暖，平安的度过一年，没有烦恼。

所记载的内容比较简单。努力务农的话，可以避免饥饿乞讨的危机，所以哪怕是一块撙荒地也要努力耕耘。列举了流浪讨饭的危机和安稳生活，警民编鼓励农耕的方式能看出具有明确表现了农事的必要性的效果。因为阐明了务农这件事本身不是为了谁，而是与自己的生存挂钩。



地方居民不抛弃撙荒地，踏实耕作对他们自己也很有必要，但是对地方社会或者国家也是非常重要的问题。因为作为基础产业的农业倒塌的话，其他所有领域都会出现问题。勤奋务农是防范国家崩溃，强力维护体制的相当有效的手段。应该说警民编甚至考虑到了这样的效果。

这是第8章的法律规定。有3个内容。在撙荒地收税，勤勉经营农业外的产业，吃喝玩乐的情况，被指为盗贼的可能性等。

实际上与处罚相关的内容也就是在第一句中提到的“在撙荒地收税”。虽然不是人身拘留很难看作处罚，但是从加重经济负担这一点来看具有强制性。第二个内容是具有劝勉的性质。特别是强调了农事之外蚕业或商业也不能懒惰这一点很值得关注。也一起表达了地方不能有玩乐之人。

第三个是对游手好闲之人的警告。虽然他们实际上避免了被指认为盗贼，但是也一直都有被卷入盗贼的可能性。从这三个内容中，能够感受到地方权势热爱自己的事业，希望能够安定的强烈渴望。

第九章是积攒粮食的储积章。这一篇内容量很大，这要可以分为两部分。第一，嘱咐了不能浪费粮食。秋收以后认为粮食非常常见，于是挥霍无度，因此就无法避免要在第二年春天到夏天面临饥饿与贫乏，这就是不好好务农的结果。

第二，举了安东和北道的例子，说明了节约和浪费会带来的后果，要努力节约粮食。金正国将安东作为节约的模范，北道地区的浪费作为象征来描写。第8章讲的不浪费、积攒粮食的话，不管来了什么自然灾害都能坚持住，其内容从表面来看是消极的，但是实际上积极地提出了稳健提升农业生产的方法。

同第6章，这一章的目的是比起规定、防范犯罪，更鼓励能维持地方居民日常经济的方法。因此，对于法律处罚，“聚在一起吃酒等浪费的话也是罪。”也只是以这样简单的句子结尾。

这些在以教化百姓，加强地方社会统治为目的编撰的《警民编》中出现的内容，也是当时的实际情况。构成书的具体内容有的来自中国的古典作品，也有的遵循了《大明律》的法律规定，但是实际上内容没有脱离朝鲜的现实。



安东的人们已经将节约的习惯熟记于心，北道地方的人们尽情玩乐挥霍的正文小选段，生动展现了16世纪前半期朝鲜的人们是怎么想自己生活的朝鲜大地的。在这里举出的北道虽然不明确，但是我认为看作是物产丰富的平安道也无妨。

认为安东的人们勤勉踏实，提出了北道的人们挥霍无度，极端对比了两个地区的生活面貌，《警民编》这样的叙述只是编者金正国的想法吗？不然的话，是当时人们广泛传播的共同认知吗？我很好奇。

可以看到对这个时期北道风俗的提及并不好找，但是安东的人们勤俭节约的评价在当时的朝鲜广为流传。世宗实录《地理志》中，对安东和这个地区的习俗有这样的记载，“土地贫瘠，风俗崇尚勤俭朴素，致力于农耕。”成宗时期编纂的东国与地胜览里也说安东的人们，“尚勤俭，务农桑”，“务本节用”。

1486年成宗17年，曾任全罗道賑恤使李克墩的发言也很类似。他对比了朝鲜的浪费习俗，高度评价道：“安东的百姓崇尚勤俭节约，所以统计一年的收获，事先算好第二年会有多少种子和粮食，剩下的用作今年生活费用，因此就算有水灾和旱灾，也不会饥饿到出现互相抛弃的忧虑。”

下节课我们将探讨《警民编》的盗贼和杀人。





4-5 盗窃, 杀人

上节课我们探讨了《警民编》中有特殊性质的犯罪, 乡村中的生活。这节课将针对《警民编》的盗窃和杀人进行探讨。

在警民编中提出的最重犯罪就是盗窃与杀人。这种犯罪会危害地方社会稳定, 进而动摇国家根基。大明律里将谋反、逆谋等大规模叛乱行为也划分为盗贼, 但是警民编里并未涉及。警民编重视地方居民的日常中的越轨, 其意图可以从这里找到。

杀人是杀害人和被害人交织在一起的大事件。虽然管是谁都不能杀人, 查明杀害人, 为被害人伸冤也是很重要的事。朝鲜在这方面, 想要实行彻查杀人案件, 不产生一点疑惑的原则。可以看出世宗时代以来想要运用无冤录处理杀人案件。照片上是正祖时期发行的无冤录谚解。

第十二章是盗窃章。内容简单明了。说了宁可乞讨也不能盗窃或强抢。因为即使通过这个可以一时锦衣玉食, 也避免不了最终被发现, 家破人亡。

从成为盗贼的理由, 寒冷与饥饿, 即困苦中解救出来, 《警民编》这样的视角是正确的。没有吃穿所以去偷或抢别人的东西。“没有人饿了三天害不翻墙。”的俗语就是这么来的。没有人天生性格如此, 或者因为无聊没事干才去盗窃。

难道没有让善良的人避免成为盗贼的方法吗? 如果没了饥饿的人, 偷盗抢劫的人也就自然消失了。这样一来为了没有盗窃的方法就成了防止有人饥饿。

为此有必要让社会成员们都生活富足。这与制定制度基础有关。这算是社会政治课题。但是警民编中没有这样理解问题。以地方居民们为对象的书, 没法去讲政策。

警民编建议如果被逼到了要盗窃的地步, 干脆就当乞丐去乞讨。现在来看, 虽然觉得这实在是寒碜, 不像地方官员提出的对策, 但金正国似乎认为这个是基于16世纪的现实, 最优先的事情。就连之后17-18世纪朝鲜人在关注《警民编》的价值时也没能打破这种思维框架也是事实。

朝鲜有很多乞丐。17世纪漂流到朝鲜, 在这里生活了十余年的哈梅尔也说, 1662年爆发大饥荒, 冬天在整个地区流浪, 靠乞讨果腹。哈梅尔说这时体验到了“讨饭吃也还是做乞丐好些”。



冬天要来了，因为是荒年所以没有多余的衣服…向左水使请愿，申请想要我们中一半的人轮流工作三天，剩下的一半去讨粮食。这件事最终顺利进行。因此我们外出乞讨15到30天左右，得到的东西再一起分配。这一直持续到现任的左水使离任为止。

有话说“连国家都救不了的就是贫穷”。虽然不确定这句话是哪个时期的，但也是说救济贫穷并不是那么简单的事。让因饥寒而盗窃的人干脆去乞讨，警民编的这个提议，虽然是出于保护他们生命的心意，但反过来说也体现了这一时期朝鲜恶劣的经济状况。

这是盗窃罪的处罚规定。记载的处罚规定将偷盗和强盗区分开来。说明了对于偷盗，处罚分为两种形态。偷盗的话处以杖刑，赃物很多的话降低身份，当作海上孤岛的奴隶。这里没有称呼为奴婢，而叫做男仆的“奴”，是因为“盗窃犯是男人。”的观念。实际上，也是因为盗窃的人大部分都是男人。

《警民编》的处罚规定参考了《大明律》和《经国大典》两部法典，并进行了适当地整合和概况。《大明律》的“盗窃”条中规定将小偷小摸和赃物规模大的偷盗按等级处罚，《经国大典》中则将《大明律》中大盗的人送往孤岛永世为“奴”。可以看出在借鉴《大明律》内容的同时，根据朝鲜的情况而改变。提出了《警民编》还对盗窃犯处以刺字刑这一点。刺字刑是用墨在身上刻下他所犯之罪的刑罚，刻上了就一生都无法抹去只能给别人看到的“朱红字”。针对盗窃的刺字刑具体的方式，在《大明律》中，盗窃的初犯都要在右胳膊上刻下“窃盗”两个字，再犯就在左胳膊上刻下“窃盗”，3犯的话处以绞刑。

由此来看，可以知道《警民编》中在给盗窃的人刺字时，刺青的内容是“盗”。《经国大典》中 如果刺字了的话，刺字的地方封起来，签字，盖章之后过3天再释放。因为刺字后立刻放走的话，经常会抹掉刻字的墨水，擦除痕迹，因此这是为了防止这种事。

刻字的字体大小遵循了《大明律》。基准是每个字边长1寸5分，每画的宽度是1分5厘。挽起袖子别人就能看的很清楚。

刺字刑过了很长时间后，于1740年英祖16年废止，这收录于《续大典》中。刺字刑废止出自是英祖采取一系列废止严刑的措施中，英祖分别在1724年英祖即位年，1733年英祖9年废止了拷问嫌疑人时使用的压膝刑，烙刑，于1744年英祖20年废止了全家徙边的刑律。



《警民编》中说,强盗的话“不管是领头的还是下属全部斩首”。《大明律》中按照得到财物和没得到财物两种情况制定了处罚规定,得到财物的情况下,不管是主犯还是从犯都处以斩刑。《警民编》的处罚规定就是据此而来。

在朝鲜,对盗窃和抢劫的处罚很严格。在《警民编》中,虽然认为盗窃和抢劫的出现是由于饥饿和贫穷,但为了寻找对策而去盗窃和抢劫的话,最终会酿成大祸的内容以上并没有说到。

对于朝鲜的很多人来说,在这片土地上生活是一件多么困难的事情。从国家的立场来看,抢劫、盗窃行为也是严重扰乱治安秩序的事件。金正国宁愿百姓乞讨也不要抢劫、盗窃,是因为在朝鲜,在百姓没有能够避免饥饿的特别对策情况下,既有对他们处以严酷的刑罚而感到惋惜之心,又有希望维持辖区内安全的治安之心。

虽然难以两全,但无论如何,对于金正国来说,不让百姓抢劫、盗窃是切实的问题。对这一犯罪的处罚与其他犯罪不同,在盗窃和抢劫的人身上贴上“盗窃”、“强盗”的标签,使之成为他们一生的枷锁。就像其字面意思一样,这是只要一旦成为盗贼,就要永远以盗贼身份向全世界公示的刑罚。

第十三章是杀人章。

下面我来读一下句子的原文和翻译文。人命至重,彼我无间,暴恶之人,或因贪财,或因讎怨。暮夜无人,潜行杀害,自以为得计。上天临下孔昭,鬼神在仿。早晚发露,必蒙残孽,伐杀无罪之人,保全平生者,自古未有。

人的生命至为重要,其重要不分你我。暴戾之人,或贪财,或报怨,半夜偷偷杀人,自己放心没有问题。因为上天在上面俯瞰得清清楚楚,鬼神也在旁边迟早会真相大白,必定会遭殃。自古以来就没有杀害无辜之人,过上安逸一生的人。

人杀人的理由多种多样,但本章只提到了贪图财物而杀人,为了报仇而杀人等。这种杀人与因愤怒的感情吵架而偶然发生的杀人等性质不同。有计划、有意图、避开他人的视线隐秘地进行杀人是这里描写的杀人特征。犯罪性质极其恶劣。



文中简单地解释了为什么不能杀人。我的生命重要，他人的生命也宝贵，不能夺走这条生命是大前提。人若是杀人的话，无法用任何东西对那条生命负责，人的生命是非常珍贵的。所以从很久以前开始就说，如果杀死别人，杀死的人就用自己的生命来补偿死亡。这被称为偿命。

如果杀人会怎么样呢？能不被发现，平安度过吗？《警民编》说，因为有人偷偷观察的存在，谋杀就显现出来，它的存在就是上天，就是上天和鬼神。这些都是超越时空的存在，虽然用眼睛无法确认真相，但在《警民编》看来，他们却活灵活现。因为有了他们，杀人才被揭露，所以绝对不能杀人。不应该杀人的真正原因就是他们。

提及上天和鬼神的《警民编》很好地展现了面对人类智慧无法承受的事件时，人们采取了怎样的态度。他们总是离得很近，却拥有超越的力量，从这一点看，他们是威力无比的存在。

“不能犯罪，之所以拥有这样的心，是因为比任何逻辑和解释都生动地意识到他们是真实存在的，用明亮的眼睛看着他们。”哪有像上天和鬼神在盯着一样逼真的事情呢？虽然看似威胁或虚构，但这些人在这个时期对朝鲜人来说却是活着的存在。

《警民编》中说不能杀人，提及的两种内容是呈现了相对的面貌。如果“我的生命是宝贵的，他人的生命也是宝贵的”的理论依赖于一般的价值论的话，上天和鬼神的超越性存在在看着的故事是利用了逻辑之前的世界。

这些性质不同的两个层次的世界能否共存呢？《警民编》中，毫不犹豫地正在同时提及。在《警民篇》的作者身上，两个层面的世界并没有发生冲突。同时承认两个不同的世界，也是同一时期朝鲜人的心象。上天和鬼神是带着眼睛和耳朵经常于我们身边的存在，所以同时观察着我们善良的行为和不好的行为并赐予福和祸，是一个很可怕的存在。

杀人章还提出了按几种类型划分的处罚规定。蓄意杀人，诅咒杀人，利用毒药杀人，利用毒虫毒蛇杀人，隐瞒危险的杀人等。这些杀人是故意进行的，与过失致死和伤害致死的性质不同。犯罪性质严重恶劣。从这一点看，处罚的力度非常高。无论是哪种情况，都能够得知他受到了斩刑或绞刑的处罚。

《警民篇》中提到的多种形态的杀人与国家权力以事实为根据的正式判断有着密切的关系。国家应该通过严格的调查来查明事实，并以此为基础处理围绕事件的一系列事态。在地方第一线负责的人是守令。民事刑法上的法律案件都是由他处理的。守令只要发生杀人事件，直到事情结束，一刻也不能放心。



案件被受理后,守令保存案发现场,确认嫌疑人的同时,要对尸体进行尸检,并制作尸检书。“验尸”又称“检验”,是通过对原型尸体的“检眼”进行的。验尸报告在调查所有值得参考的事实后,按照验尸格式制作了验尸书。

与验尸相关的一系列过程参照了世宗大王时期发行的《新注无冤录》。这本书是对中国元代人物王与制作的《新注无冤录》的补充,从杀人事件发生到其结束为止的法式和需要注意的地方一目了然地整理出来,对杀人事件的处理非常有用。

此后,英、正祖时期对其进行修订增补,制定《增修无冤录》,用韩文注解,以《增修无冤录谚解》的名称发行。

验尸中最重要的问题是辨别尸体是自杀、被杀害、被杀害是被殴打致死、是被刀刺死、是被勒死还是被毒死等。这里是否存在目击者,尸体周围的环境等都是必须确认并整理的事情。

死亡后时间过了多久也是需要查明的问题。《警民编》中提到的各种杀人类型都是经过精密调查和搜查后才能确定的,对阐明这一点有用的是《新注无冤录》等书的智慧。

以上就结束了“解读《警民编》”。《警民编》是期待地方居民能够避开违法行为和越轨行为而制作的。为此,《警民编》的编纂者金正国认为,首先理解和唤醒地方居民不能犯罪的理由是非常重要的。其次是了解法律知识。

以教化为根本,将法律上的刑罚放在末端的这种思考方式,与以儒教政治论为基础运营国家的朝鲜执政者的志向相吻合。朝鲜的执政者们认为这样的方式是长期维持国家安定的力量。16世纪初编纂的《警民编》直到19世纪末一直在运用的原因也是如此。

朝鲜标榜儒教立国来运营国家,生活在其中的百姓们都经过了长时间的儒教化。可以说,《警民编》是这样一部将这样的历史过程展示给我们看的作品。《警民编》这门课程到此就全部结束了。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은 《경민편》에 나오는 범죄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5분

- ① 김정국이 《경민편》을 편찬할 때 다룬 범죄의 주제는 13가지였다.
- ② 《경민편》에서는 도적, 투구, 범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책의 앞 부분에 배치했다.
- ③ 《경민편》에서는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다루지 않았다.
- ④ 《경민편》에서는 농사 및 저축과 관련한 범죄도 실었다.

정답 ②

해설 《경민편》은 13개 주제로 편장을 구성했습니다. 내용과 성격으로 살펴보면, 부모, 부처, 형제자매, 족친의 4항목의 가족 혈연관계의 범죄, 1항목의 노비, 인리 1항목의 향촌에서의 범죄, 도적, 투구, 범간, 살인의 4항목의 향촌 구성원 사이의 일반 범죄, 근업, 저적의 2항목의 농사 및 저축 관련 범죄, 사위 1항목의 관공서 혹은 공권 관련 범죄 등으로 나뉩니다. 모두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인데, 김정국은 가족·혈연관계의 범죄를 책 앞부분에 실어 이와 연관된 범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국가와 국왕에 대한 반역과 같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다루지 않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답은 ②번입니다.



02 《경민편》의 부모장은 “아버지는 하늘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다. 수고로이 나를 낳아 부지런히 젖을 먹여 힘들게 길러내니, 부모의 은덕은 하늘 같이 끝이 없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5분

- ① 이 내용은 《시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명심보감》에도 《경민편》 부모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 ③ 16세기 중반, 지방관이었던 주세붕(周世鵬)이 지은 《오륜가》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 ④ 부모의 은덕을 기리는 《경민편》 부모장에서 이 책만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부모의 은혜를 하늘같이 높다고 기리고 효도할 것을 강조하는 《경민편》 부모장의 뿌리는 《시경》의 시입니다. 이 내용은 조선 초부터 읽힌 《명심보감(明心寶鑑)》에도 실려 있었는데, 《경민편》이 만들어진 16세기 전반 이래 노래나 책을 통해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황해도 감사로 재직하던 주세붕(周世鵬, 1495~1554)도 《오륜가》를 지어 황해도민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민편》 부모장의 내용은 《경민편》에서 처음 다룬 것이 아닙니다. ④번은 바르지 않습니다.



03 다음은 《경민편》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5분

- ① 《경민편》에서는 형제·자매간 불화를 일으키는 최대 요인을 재산 분쟁에서 구했다.
- ② 《경민편》에서 거론하는 뿌리 의식은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와 같은 족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③ 《경민편》 인리장에서는 호강(豪強)한 사람이 백성을 침해하여 해를 입히면 한 달 동안 구류하는 벌을 내린다고 했다.
- ④ 《경민편》에서는 상천(上天)과 귀신이 몰래 살피기 때문에 살인은 숨길 수 없다고 했다.

정답 ③

해설 《경민편》의 형제·자매장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형제·자매간의 불화인데, 김정국은 그 주된 요인이 토지와 노비의 상속을 둘러싼 재산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경민편》은 또한 혈족 간의 뿌리 의식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조선초기 족보를 만들던 의식하고도 상통했습니다. 향리의 생활을 다룬 장에서는 토호가 힘이 약한 백성들을 침해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 온 가족을 북쪽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의 처벌을 내렸는데, 《경민편》에도 이를 그대로 실어서 경계했습니다. 《경민편》에서는 거론한 강력 사건은 살인, 절도입니다. 살인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이거니와 범죄자 스스로도 패가망신의 화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민편》에서는 상천(上天)의 하늘과 귀신이 몰래 살피기 때문에 살인은 숨길 수 없다고 하여, 살인을 피하도록 경계했습니다. ③번 항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04 다음은 《경민편》에서 다루는 처벌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5분

- ① 부모를 고의로 죽이면 능지처사(陵遲處死)했다.
- ② 남편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아내의 범죄와 처벌을 더 많이 제시했다.
- ③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능지처사했다. .
- ④ 곡식을 함부로 낭비하여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장 100대의 벌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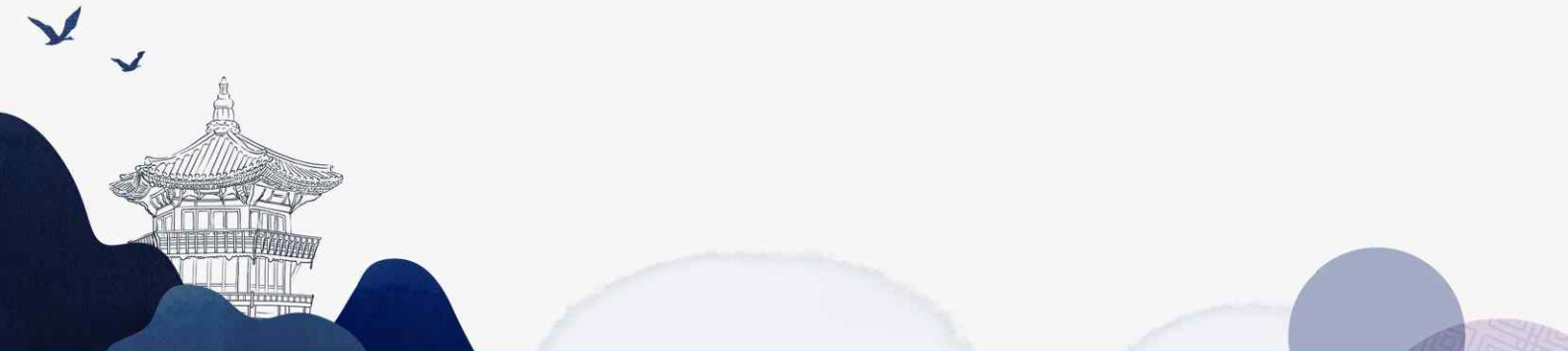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정답 ④

해설 《경민편》에 실린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은 대체로 《대명률》에서 왔습니다. 《대명률》에서는 부모를 고의로 죽이거나 아내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능지처사한다고 규정했는데, 《경민편》 또한 이를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남편보다 아내가 두 배나 더 많습니다. 가부장제의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민편》은 곡식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별도로 처벌 규정을 실지는 않았습니다. 애초 범죄로 다룰 행위는 아니었고 형률 규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은 ④번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경민편》은 조선의 지방민들이 범죄를 짓지 말고 살기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책입니다. 책의 저자 김정국은 이를 위해 지방민들이 일상에서 저지르는 죄를 주제별로 묶고 각 주제마다 죄를 지으면 안되는 이유를 유교의 도덕과 상식적인 사리를 들어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에 범죄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범죄자, 범죄 행위를 대하는 김정국의 특별한 생각과 연관이 있습니다. 《경민편》을 관통하는 김정국의 사유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특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60분)

참고

《경민편》의 저자 김정국은 지방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이유를 유교적 도덕과 상식을 통해 먼저 이해하고 깨우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형률로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과도 상통하는데, 김정국은 국가 권력이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는 이유를 알려 주지도 않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처벌하면 이는 그물로 새나 맹수를 덮쳐서 사로 잡는 일과 똑 같다고 여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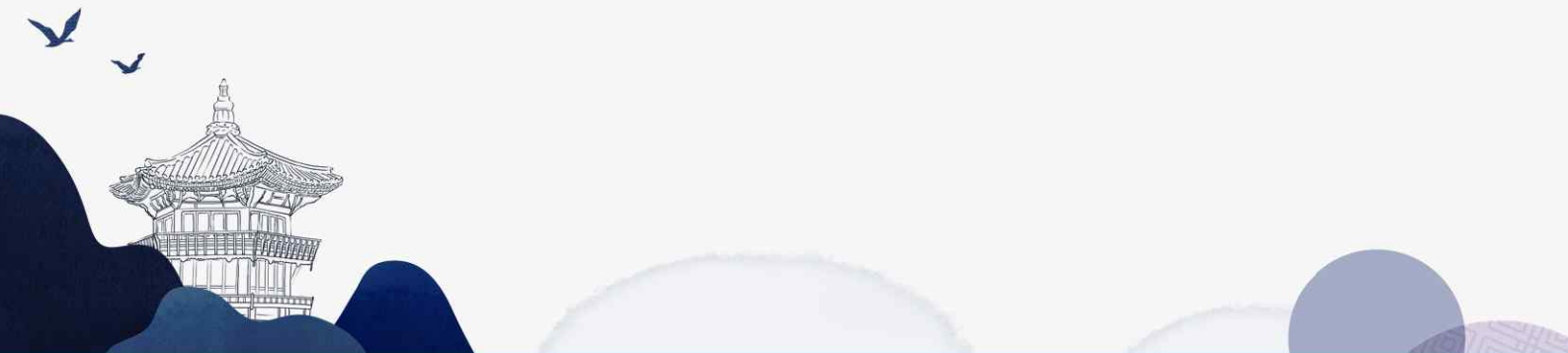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김정국이 지녔던 이러한 사유는 교화를 근본에 두고 법률적인 형벌을 말단에 두는 판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정치론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조선 위정자들의 지향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6세기 초에 편찬된 《경민편》이 19세기 말까지 활용된 까닭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입국을 표방하며 국가를 운영했고, 그 속에서 살았던 백성들은 긴 시간에 걸쳐 유교화되어 갔습니다. 《경민편》은 그러한 역사 과정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일부 알려 주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쉽게 읽는 경민편언해, 윤석민·유승섭·권면주 풀이, 박이정출판사, 2006

17세기 중엽 이후원 간본에 실려 있는 '언해'를 현대어로 번역하고 주를 달아 설명, 오늘날의 독자들이 경민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민편, 교화와 형벌의 이중주로 보는 조선사회, 정호훈 저, 아카넷, 2014

《경민편》의 전 내용을 번역하고 각 장에서 거론하는 교화의 논리와 처벌 규정을 조선의 현실과 연관하여 설명한 책입니다. 본 강의에서 다룬 《경민편》의 세계를 넓혀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조의 법치, 김호, 휴머니스트, 2020(정조학 총서 4)

국왕 정조의 정치 운영을 조선 초기부터 진행된 법치, 형정과 관련하여 살핀 책입니다. 조선의 정치권력이 교화와 형정 두 요소를 활용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을 이해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서입니다.

웹사이트 자료

- KBS, 한국의 유산, 『삼강행실도』

https://www.youtube.com/watch?v=Hss8jPp97CQ&ab_channel=KBS%ED%95%9C%EA%B5%AD%EB%B0%A9%EC%86%A1